

www.jntle.k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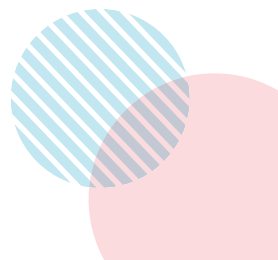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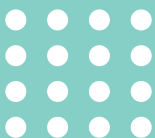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성과집

JEOLLANAMDO INSTITUTE FOR TALENT & LIFELONG EDUCATION

“장학사업과 인재육성사업으로 전남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갑니다.”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Jeollanamdo Institute for Talent & Lifelong Education



Contents

○ 진흥원 소개

발간사	4
일반현황 / 조직구성 / 비전 및 목표	6

○ 주요사업

Section 1. 장학

1. 장학금 지원	10
2. 특별장학금-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13
3. 장학 네트워크 구축	15
4. 꿈꾸는 청춘들의 성장에세이 공모전	18

Section 2. 인재육성

1. 찾아가는 멘토특강 꿈틀	32
2. 특별한 소풍	33
3.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35
4. 남도학 첫걸음	37
5.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39
6.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40
7.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42

Section 3. 평생교육

1. 문해교육센터 운영	46
2. 생활 밀착 기술 교육	54
3. 평생학습동아리	56
4.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57
5.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59
6. 동네방네 배움툼 운영	61
7.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교육	64
8. 평생학습 수기공모전	66
9. 전남 평생학습 실태조사	75
10.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 캠페인	76

Section 4. 전남학숙

1.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78
2. 입사생 모집 및 선발	80
3. 인재 유치 및 학숙 홍보활동 강화	81
4. 면학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83
5. 마음 나눔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85

Section 5. 언론보도·업무협약

1. 주요 언론보도	88
2. 업무협약(MOU) 체결	97
3. 2021년 후원해주신 분들	100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고석규

통합 출범 첫해를 보내며...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20년 7월 1일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재)전남장학회, 그리고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그리고 한동안 공석이던 원장에 2021년 4월 26일자로 취임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면서 한 해가 저물었다.

그동안 '전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매년 성과집을 냈었다. 이번에는 통합 출범에 맞춰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장학, 인재육성, 그리고 위·수탁기관인 전남학숙까지도 모두 아우르는 종합 성과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출범한 지 겨우 한 해, 아직 성과를 말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그래도 그동안 임직원들의 열정으로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 성과들을 모아 여기에 엮었다.

주요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장학금 체계를 4대 장학금으로 개편하여 진흥원의 자체 선발 기능을 확대하였고, 에세이·면접심사 등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꿈칭춘 장학에세이집』도 발간하였다. 다만, 선발 기준점이 높아 예상보다 수혜자가 적어 안타까웠다. 이런 시행착오는 향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내라! 희망전남 특별장학금”을 도내 졸업예정 대학생에게 지원하였고, ‘전남사랑 장학금’도 지급하였다.

다음, 민선 7기 브랜드 사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를 비롯하여 새책·핵심·산업인재를 육성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도 희망인재육성과와 협조하여 원활하게 수행하였다.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추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특히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사업들이 축소 또는 연기,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초조하게도 하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직원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하는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전남 만들기”라는 목표로 다양한 평생교육사업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전라남도 문해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비문해자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 문해교실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도 추진하였다.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한 ‘남도문해업UP’ 앱북(app book)도 개발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시화전도 3회에 걸쳐 개최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였다. 다만 전남의 성인 문해교육 잠재수요자가 20세 이상 전 도민의 19.7%(약 29만명)나 되는 데 비해 실수혜자가 400여 명에 불과해 무척 아쉬웠다. 도의회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주는 등 큰 도움을 주었다. 순천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전라남도관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도 평생학습의 리더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냈다.

‘남도학’과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등 도민행복대학 사업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수용하여 성황리에 수행하였고 『아름다운 남도 민주시민 되기』 교재도 완성하였다.

전국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부회장을 맡았으며,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의 일원이 되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평생교육의 인식 제고와 확산에 기여하였다.

평생교육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적응교육으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문해교육, 시민교육을 넘어 직업교육에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여 행복한 전남 만들기의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

2012년 3월 위·수탁협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 전남학숙은 준공 후 22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대비한 건축·시설물 종합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울러 입사생 모집 활동 및 면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적화된 면학환경 조성과 안전한 으뜸학숙을 구현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끝으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운영팀을 정비하였다. 윤리현장 및 고객서비스현장을 제정하여 도민 친화기관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하였고, 회의실 개선 등을 통해 시설환경도 업그레이드하였다. 특히 자체 평생학습 교육장인 배움마루를 확보하고 이를 기능적으로 꾸며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도 직원 복지를 위한 성과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2022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그리고 사업 로드맵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새해를 넉넉히 대비할 수 있었다. 소식지 ‘웹진’을 비롯한 각종 홍보 책자 제작, 기관 SNS 홍보, 도민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진흥원의 사업 소개 및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성과집도 그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각종 홍보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기획운영팀과 박서영 대리에게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격려와 더불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개인적으로 대학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면서 늘 해왔던 일이 인재양성과 교육이었기 때문에 본 진흥원의 사업들은 익숙했다. 하지만 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진흥원이란 사업 현장은 대학과는 많이 달라 이에 적응하는 데, 또 세부적인 사업들에까지 일일이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도의회와의 관계를 익히는 것도 익숙치 않은 일이었다.

이런 어려움들은 진흥원에서 새롭게 만난 우리 직원들이 있어 모두 잘 해결할 수 있었다. 낯선 만남이었지만,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때문에 한동안 안면인식장애(?)를 겪었지만, 그 만남의 하루하루는 행복하고도 고마운 나날들이었다. 다음 연도에는 보다 더 알찬 성과들로 이 성과집을 채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2022. 3.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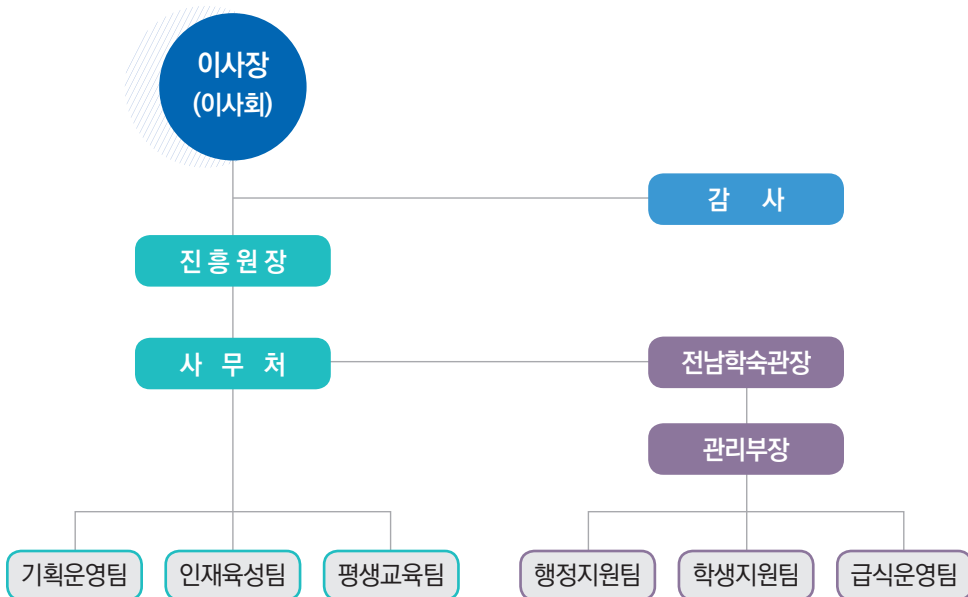


원 장 | 고석규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8층

- 연 혁 |
- 2021. 04. 26.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고석규 원장 취임
 - 2020. 07. 01.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통합 출범
 - 2020. 01. 22.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위·수탁 재협약(전라남도)
 - 2020. 05. 01. 전남학숙 김석원 관장 취임
 - 2016. 12. 12.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위·수탁 협약(전라남도)
 - 2012. 70. 05 전남장학회 흡수 통합
 - 2012. 03. 02. 전남학숙 위·수탁협약(전라남도)
 - 2008. 12. 24. 법인설립등기(무안 등기소)
 - 2008. 11. 04. (재)전남인재육성재단 발기인 총회 개최

● 조직구성



● 비전 및 목표



MISSION

“ 미래를 선도할 전남형 혁신인재 양성과 도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

VISION

도약하는 전남을 위한 창의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사회 구현



목표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역이 되는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도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활성화

○ 정책영역 및 추진전략

장학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장학 지원
- 기부문화정착과 확산으로 장학기금 조성 확대
-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 관리 지원 체계 구축

인재육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형 인재양성 기반 구축
- 지역·산업별 스마트 인재 육성 모델 발굴 및 지원
- 글로벌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모델 구축 및 지원

평생교육

- 지역사회 참여형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도민 중심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추진 역량강화 및 인프라 확대

전남학숙

-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개선
- 취업/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활성화
- 친환경 급식 및 각종 재난·보건위생 관리

Section

01

장 학

1. 장학금 지원
2. 특별장학금-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3. 장학 네트워크 구축
4. 꿈꾸는 청춘들의 성장에세이 공모전

1 장학금 지원

01 사업 개요

- **지원시기** : 연 3회(상·중·하반기)
- **지원대상** ※ 장학분야별 세부 지원조건 다름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 **평가방법**
 - 공모제 : 1차 서류 심사(정량+정성) + 2차 발표심사(정성)
 - 추천제(시군 및 기관·단체) : 서류심사(정량+정성)
- **선정결과** : 1,117명 장학생 선발, 930백만원 장학금 지원

02 사업 내용

- **전라남도 장학금**
 - 우리 도 대표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 장학생 선정 : 65명 선발, 111백만원 장학금 지원

구분	대 상	비 고
전라남도	고 3~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고교 3학년 선발 • 대학졸업(4년) 시까지 지원 • 고 100만원 + 대 400만원
미래인재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규선발 없음, 기 선발 장학생 지원 • 대 400만원
지역공헌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멘토링 및 교육봉사가 가능한 도내 대학생 지원 • 매월 16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 30만원(총 360만원)
전남사랑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출향향우 자녀 지원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남사랑도민증' 소지 • 대 150만원
특별격려	초~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학생 지원 • 100~500만원
긴급지원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 ※ 지자체 추천 • 대 50만원

○ 희망나래 장학금

-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 장학생 선정 : 485명 선발, 428백만원 장학금 지원

구분	대 상	비 고
한울타리	중~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다문화, 유공자, 장애인, 셋째이상 다자녀, 조손/한부모, 새터민 등 지원 ※ 지자체 추천
움찬학교밖	초~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 밖에서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 100만원
늘봄만학도	초~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늦은 나이에도 학업을 이어가는 만학도(35세 이상) 지원 • 100만원
다원외국인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 ※ 도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잔류 기간이 6개월 이상 • 대 100만원

○ 행복동지 장학금

- 농업경영인, 중소기업가정, 지역특화사업 참여자를 지원하는 장학금
- 장학생 선정 : 318명 선발, 188백만원 장학금 지원

구분	대 상	비 고
고향정착 희망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사업 참여 학생 지원 ※ 사업 참여 대학 추천 • 대 5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고~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 5명 이내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지원 ※ 도 중소벤처기업과 추천 • 고 50만원, 대 150만원
5·18 유공자	고~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 민주유공자 자녀 지원 ※ 5·18 구속부상자회 추천 • 고 50만원, 대 150만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재학생 지원 ※ 마이스터 대학 추천 • 대 50만원

○ 특별지정 장학금

- 네이밍 장학금으로 기탁자(기관)가 지정한 장학금 수혜 범위(지역 및 대상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
- 장학생 선정 : 249명 선발, 203백만원 장학금 지원

구분	대 상	비 고
전남 도시가스	초~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성적우수 ※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추천 • 초 20만원, 중 30만원, 고 50만원, 대 150만원
해양 에너지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추천 • 대 150만원
녹색 에너지	고~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다문화/성적우수 ※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추천 • 고 50만원, 대 150만원
울촌현대	고~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무안군 추천 • 고 50만원, 대 150만원
전남학숙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성적우수 ※ 전남학숙 추천 • 소득별, 성적별 장학금 차등 지원(50/70/100만원)
황경자	중~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소방서 ※ 소방근무경력 3년 이상, 순천소방서 1년 이상 소방관 자녀 • 50만원



○ 장학금 선발 서류 심사



○ 장학금 선발 면접 심사



2 특별장학금-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8. ~ 9.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대학 졸업학년도 재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
- 지원규모 : 6,660여 명(졸업학년도 대학생)
- 자격요건 ※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대학의 졸업학년도 재학생인 경우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1년 이상 도내에 소재 한 경우
- 소요예산 : 40억원

02 사업 내용

- 접수기간 : '21. 8. 19. ~ 9. 7. - 장학생 접수 결과 : 6,558명
- 자격조회 : '21. 9. 8. ~ 9. 14. - 자격요건 조회 결과 5,603명 최종 선정
- 장학금 수여식 : '21. 9. 15. - 대학에서 대표 6인 추천
- 장학금 지급 : '21. 9. 17.

구분	대 학	장학금지원(명)	구분	대 학	장학금지원(명)
	계	5,603	11	영산선학대	1
1	목포대	583	12	전남도립대	177
2	순천대	751	13	목포과학대	431
3	전남대(여수)	129	14	한영대	368
4	목포해양대	125	15	순천제일대	650
5	동신대	482	16	청암대	662
6	세한대	149	17	고구려대	201
7	초당대	204	18	광양보건대	123
8	목포가톨릭대	95	19	전남과학대	122
9	한려대	30	20	동아보건대	277
10	광주가톨릭대	2	21	한국폴리텍대	41



○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증서 수여



3 장학 네트워크 구축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5. ~ 12.
- 대 상 : 도내 장학 담당자 및 관계자
- 사 업 비 : 6백만원
- 사업내용 : 장학사업 최신 동향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02 사업 내용

- 시군 장학관계자 회의 개최
 - 일 시 : 2021. 5. 21.(금) 14:00 ~ 16:00
 - 장 소 : 나주 스페이스코워킹 2층 타운홀1
 - 참석대상 : 29명
 - 주요내용
 - '21. 장학제도 개편 사항 및 사업 계획 안내
 - 시군 별 장학사업 운영 사례 발표
 -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행복동지 장학 관계자 회의 개최

- 일 시 : 2021. 7. 14.(수) 15:00 ~ 16:00
- 장 소 : 진흥원 회의실
- 참석대상 : 7명
- 주요내용
 - '21. 장학제도 개편 사항 안내
 - '21. 행복동지 장학금 세부 운영 계획 설명
 - 사업 운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대학 장학 관계자 회의 개최

- 일 시 : 2021. 8. 17.(화) 14:00 ~ 15:30
- 운영방식 : 비대면 회의
- 참석대상 : 23명(진흥원 2, 기관 관계자 21)
- 주요내용
 - '21. 장학제도 개편 사항 안내
 - '21.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지원 계획 설명
 -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장학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일 시 : 2021. 12. 8.(수) 14:00 ~ 16:00
- 장 소 :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 참 석 자 : 진흥원 및 시군 장학 관계자 27명
- 주요내용
 - 샌드아트 공연 '꿈과 재능에 날개를 달아준 장학금'
 -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충남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운영 사례
 - 순천시, 곡성군 장학사업 운영 사례
 - '22년 인재육성 장학사업 운영 계획(안) 안내 등



○ 전라남도 장학생 정담회

- 일 시 : 2021. 12. 21.(화) 14:00 ~ 16:00
- 운영방식 : 비대면 간담회
- 참석대상 : 18명(멘토 3, 전라남도 장학생 15)
- 주요내용 : 예비대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4 꿈꾸는 청춘들의 성장에세이 공모전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11. ~ 12.
- **대 상** : 현재까지 우리 원 장학금 수혜자 누구나
- **공모주제** : 장학금으로부터 시작한 나의 이야기
 - 장학금을 매개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던 성장 이야기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사례 등을 수기 형태로 자유로이 기술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누리집)
- **시상규모** : 총 18작품, 500만원 시상금

02 사업 내용

- **공모기간** : 2021. 11. 8. ~ 11. 26.
 - 접수 결과 : 50편
- **심사방법**
 - 심사일시 : 2021. 12. 10.(금) 14:00
 - 심사대상 : 46편 ※ 우리 원 장학금 미수혜자 4편 제외
 - 심사위원 : 외부 전문가 3인
 - 심사기준 : 내용의 적합성, 발전성, 작품성, 공감도 등

○ 에세이 수상작

연번	구분	성명	에세이 제목
1	대 상	선 명 훈	내 인생의 수업비, 장학금
2	최우수상	권 지 윤	덕분에
3	우 수 상	이 효 진	항해
4	우 수 상	오이든샘	변화를 향한 나의 날갯짓
5	우 수 상	강 수 화	늦각이 대학생의 비상
6	우 수 상	구 지 원	내 꿈을 향한 긴 여정의 첫 페달을 밟다
7	우 수 상	강 지	인구학자의 꿈을 꾸다
8	우 수 상	김 명 찬	내 꿈과 나의 이야기
9	장 려 상	윤 혁 주	진정한 공감, 성인권 변호사를 꿈꾸며

연번	구분	성명	에세이 제목
10	장려상	장옥순	시련 너머 내 꿈
11	장려상	정재훈	열심히 살아온 나, 수고했다
12	장려상	이령원	좋은 상담사가 되는 길
13	장려상	허정욱	작지만 큰 나비효과
14	장려상	김주향	타인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나
15	장려상	정현수	따뜻함을 심어주는 정신과 의사가 되자
16	장려상	강리	11월의 장미
17	장려상	김예원	가족들과 함께 먹는 소중한 밥 한 끼
18	장려상	박주향	DEAR. MOM

○ ‘꿈꾸는 청춘들의 성장에세이 길을 찾다’ 에세이집 제작

- 한국장학재단, 시군 및 장학기관 등 에세이집 배포(400부)
- E-book으로 제작, 누리집에 게재하여 도민 홍보



○ 공모전 포스터



○ 수상작 에세이집 제작



대상

내 인생의 수업비, 장학금

선명훈

저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에서 주어지는 기회들을 잡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피치 못하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수에서 배운다고들 하지만 그러한 배움에는 항상 수업비가 따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2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어떤 점들에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금이 저의 인생 수업비가 됐는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굳이 멀리 가서 힘들게 지내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워 근처에 터를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젊은 시절에, 서울살이를 해보셨었고, 그게 고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희 형편이 제 타지생활을 뒷바라지하실 정도로 넉넉하시진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서울대를 가면 그래도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서울대에 붙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다짐하고 집의 창고를 개조한 단칸방에서 독수공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3년을 보낸 후 운 좋게도 저는 서울대에 서류합격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 바로 면접 일자를 잘못 안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나면, 면접이 학과에 따라서 1, 2차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저는 2차 면접 일자만 알고 있다가 제가 사실 1차 면접이며, 면접 전날 밤이 돼서야 제 면접이 다음 날 오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저는 사색이 됐고, 아버지에게 차로 태워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밤 11시에 전남 장흥에서 출발해 5시간 동안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새벽 4시에 서울대학교 면접장 앞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면서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자 행담도 휴게소에 내려서 잠깐 쉬며 얘기했던 것 그리고 면접장 앞에 차를 세우고 담요를 덮고 면접시간까지 새우잠을 자던 것은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효도해야겠다 다짐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렇듯이 저의 대학 생활은 첫걸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운수가 좋아 다행히 면접의 결과가 괜찮았고 그 결과 저는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여기서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놀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독수공방의 반작용이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합니다. 대학에 가면 노는 게 당연하다고 들었던 얘기들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쌈짓돈을 가지고 기숙사에서 지내며, 1학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도

2, 3개를 하고 매일 저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하며 다른 방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시야의 폭도 많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경제 관념이 없었기에 지출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이 없으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예를 들어 웨딩 아르바이트, 호텔 서빙 아르바이트, 물류 아르바이트, 캠퍼스 투어, 과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데로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루살이 같이 지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놀러만 다니는 저를 보고 너 서울대생 맞냐고 많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신입생 때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 열심히 다양한 잊지 못할 경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목돈은 항상 필요하리라 생각해 최대한 저축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말에 7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놓을 수 있었고, 이는 전적으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2학년이 되어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때 인재육성 장학금이 저를 구령팅이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학년 기숙사를 신청하는데 소득 분위기를 실수로 1분위 낮게 입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정 서류 제출로 기숙사에서 강제 퇴거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만약 제가 장학금을 이용해서 목돈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급하게 월세를 구할 보증금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자취의 생활비도 감당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제가 제목을 ‘인생의 수업비’라고 지은 것인데요. 즉,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연고 없는 홀몸으로 타지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조건 하게 됩니다. 물론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한 실수에는 결국 수업비가 듭니다. 그것이 자신의 시간이 될 수도,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저의 실수에 대한 수업비를 인재육성 장학금이 내주지 않았다면, 저의 실수는 복구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학금은 저의 실수의 상한치를 늘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의 보증금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시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취비와 저의 불규칙한 지출은 잘 감당이 되지 않았고, 1학년 때의 불성실한 태도가 학업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군대에 가게 됩니다.

저는 모집병으로 입대하여 파주 25사단 전차대대에서 전차 포수로 복무하였고, 군대 월급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서 월급을 전부 군 적금으로 모아 약 600만 원을 가지고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1년 동안 남도학숙에서 생활을 단순화하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학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학은 도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여태까지 그저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공부했다면, 지금은 자신을 수양하는 공학자의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제가 앞으로 갈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고, 그 결과 다른 과를 복수전공 해야 할 것 같아 1년 정도 학교를 더 다녀야 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장학금이 없었다면 엄두를 내지 못했겠죠, 1년에 생활비가 약 14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장학금 덕분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었고, 현재는 자교 재료공학 전공을 복수로 전공하고 대학원에 진학해 국가의 핵심인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저 수동적으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되는 고등학교의 생활과는 다르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나의 미래가치를 정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일상의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그것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회비용들을 항상 내며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1학년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거의 모든 과의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찌 보면 제가 다른 생산적인 일을 포기하고 선택한 결정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기회비용은 필연적으로 생기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얻은 무형의 경험들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제가 내릴 결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혹은 술 때문에 늦바람이 드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장학생에게 돌려줌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유동적이고 더 폭넓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저로서는 적어도 한 학기당 200시간의 기회비용을 받았으니, 사람을 만나도 몇십 명, 책을 읽어도 몇십 권, 여행을 가도 몇 곳을 갈 기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의 선택은 더 다양했고 제 대학 생활은 더 풍부했습니다.

특히 요새 불경기이다 보니,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졸업을 늦추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도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도 장학제도를 성실히 활용한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이야기 중에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10달란트를 주자 아들들은 각각 두 배를 가지고 혹은 그대로 아니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재 장학생들은 모두가 20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 수업비를 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권지윤

Section 1
장학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22살 권지윤입니다. 공고가 뜬 것을 보고 에세이를 작성하려고 생각해 보니 장학금을 받게 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져요. 그 1년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보다는 뿌듯함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뿌듯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가 혼자서 생계를 이끌어 나갑니다. 물론 지금 생활에 턱 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부, 취미 등 맘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대학생활을 하면서 장학금 한 번을 받지 못했던 저는 엄마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 항상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자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국가 장학금까지도 받지 못해 더욱더 서러웠습니다. 대학교 학비를 버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학교생활비,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쓰는 마음 하나로 고3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편의점공장, 치킨집, PC방, 빵집 아르바이트까지 3년을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말해준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을 그냥 한번 넣어보자는 마음으로 작년에 신청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라는 생각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통장에 들어가 보니 150만원이 들어와 있어 놀랐습니다. 다음 학기는 엄마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하면서 엄마가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할아버지, 고모들에게도 축하를 받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말고사가 며칠 남지 않았던 시점이라 너무너무 피곤하고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장학금을 받고 나니 시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그전에 3번의 방학이 있었는데 항상 노는 게 목표였던 저는 이후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장학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보다는 지금까지 해보고 싶던 거, 하지 못해왔던 거를 도전하라는 엄마의 말씀에 저는 해야지 다짐만 했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토익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익은 간호사에게 필수 중 가장 필수인 항목입니다. 고등학교 내내 영어를 잘 하지 못해 힘들었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시험 비용이 한번 볼 때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어서 지금 봐봤자 취업할 때쯤엔 유효기간이 끝나 아까울 것 같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기회다'는 생각으로 토익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책을 사고 공부를 해 시험을 봤습니다. 비로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토익이랑게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다는 것과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엔 부족한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듣기를 들 때는 시험장과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야겠다는 등 다음 토익 시험을 대비해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때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또 토익을 미루고 또 미뤄 정작 필요할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토익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재육성 장학금 덕분에 토익에 기초를 자세히 알게 되었고 토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처음 장학금을 받았던 그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장학금을 받았을 때의 느낌과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자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목표가 확실히 없으니 더 많이 할 수 있던 공부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뒀다는 걸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습으로 인해서 더블 강의를 듣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제일 힘들었던 학기였습니다.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오기만 해도 하루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피곤해서 그러지 못하는 게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 새벽 늦게까지 잠과 싸우느라 힘들 때마다 제가 작은 종이에 써놓은 저의 목표 '장학금'이 세 글자를 위에 덧붙여 따라 쓰면서 이겨내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지만 목표가 있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과 특성상 학생 수가 많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등수까지 한 번에 오르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등수 차이로 장학금은 못 받았지만 그 전의 등수보다 위로 두 배 이상을 경총 뿔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자책하기만 했었는데 장학금으로 인해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나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기에는 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은 공부에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학 중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해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시험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이지만 목표를 잊지 않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말은 해왔지만 결국에 저는 저의 꿈인 간호사를 목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토익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꿈까지 달려가는 과정에서 인재육성 장학금은 제게 많은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에세이 제목은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경험했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인재육성 장학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학금을 받는 그 날까지 또 열심히 달리고 달려서 성장하고 있을 테니 기대해 주세요!



우수상

항해



이 효 진

창대한 각오와 함께 떠난 여정에서 폭풍우를 만나면 배와 함께 선원의 마음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굳은 의지와 빛나는 희망은 생각보다 쉽게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배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선원은 이 항해를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게 됩니다.

부족한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인간의 본능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부터 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1년에 500권씩 독후감을 써냈던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집에 오면 텅 빈 책장에 항상 놀라곤 했습니다. 친척에게 물려받은 역사 전집이 전부였는데, 그 두꺼운 스무권짜리 전집을 닳도록 읽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지역도서관에서 늘 대출한도를 꽉 채워서 집에 잔뜩 가져왔고, 학교가 끝나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선생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책을 선물받으면 너무 기뻐서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일선물로 동네 서점에서 어린이 천자문을 골라 품에 꼭 안고 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할 만큼, 제 유년기는 늘 책과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보통의 삶을 누리다가 집이 결국 파산했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생활을 하겠구나. 그 때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준 것도 책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겨내서 당당한 주인공이 되곤 했습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는 늘 위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 그 깨달음이 지금까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보다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지만, 어린마음에 여전히 소위 '금수저'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고액과외를 받고, 입시컨설팅을 받고, 비싼 인강도 마음대로 듣고, 양질의 교재들을 마음껏 활용해 최고의 효율을 내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였습니다. 정말 탐나던 것은 물질 여유가 주는 심적 여유였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여유를 가지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학원에서 집어주는 내용이 시험에 다 나왔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고민해서 분석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더 자신있게 풀 수 있을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기에 정보검색능력은 기본이었고, 온갖 서적을 뒤져가며 혼자 알아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은 자기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시골 일반고 출신이라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사고, 외고, 강남 8학군 출신 친구들에게 자격지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서울에 집이 있고 씹씹이도 많이 다른 동기들과 어울리려 이런 저런 자리에 어떻게든 빠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미 대학교 수준까지 배워왔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밤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과외 다섯 개를 하면서

동아리와 학생회까지 하고 나니 삶에 여유가 없음이 느껴졌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경영학과에 와 놓고 돈에 치인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도 힘들게 했습니다. 과외 없이도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하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과 저를 많이 비교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계 여유를 준 것이 바로 장학금이었습니다. 돈과 시간 사이에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를 시작했고, 음악회도 보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품이 정말 많이 들어 꿈도 못 꿰던 연극 동아리에서 배우로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한두 폰에 연연하며 질보다 양을 찾아 헤매던 날들을 벗어나 경험과 나의 행복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이 당장 인생을 바꿀 만큼 아주 풍족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투자를 시작하고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후 제가 보게 된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색다른 도구를 얻었다는 사실에 너무도 즐거웠고, '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지 나 혼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하던 그 때에, 함께 잘사는 것이 뭔지 알려줬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가난한지, 빈곤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한 정의감이었고, 어쩌면 지적 허영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결국 내가 정상에 올랐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고민할 때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학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는 꿈을 그 때부터 꿰고, 지금도 여전히 꾸고 있습니다.

혼자만 잘되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성장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부하지만 저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와 함께, 멀리 가려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주변 많은 분들의 선의에 기렸습니다. 입학한 이후에도 역시 수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학교에서 수학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꼭 사회에 보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대신 장학금을 받으며 더 큰 꿈을 꾸도록 지원해주시는 이유는 결코 혼자만의 쾌락만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나갈 경영학이, 학우들과 해낼 많은 활동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토록 굳은 다짐이 있기에,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끝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홀로 떠나는 바다는 차갑기만 하기에, 도망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남들의 팔시 어느 즈음에서 오롯이 나를 지켜내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장학금이라는 금전적 도움은 단지 물질의 풍족 뿐 아니라 책임감과 의지를 굳건히 제공했습니다. 현재에 꿈을 맞추기보다, 꿈에서 자신을 맞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 뼘 더 성장한 저의 향해는, 경험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중심에 가끔 흔들리지만 이내 새로운 중심을 잡으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꿈청춘 에세이 수상자 인터뷰

- 대상 수상자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 18학번 선명훈 -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원의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를 공모하여 우수작 18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 18학번 선명훈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선명훈 학생의 인생이야기, 장학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이야기를 이슈포커스 인터뷰에서 만나보세요.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18학번으로 입학해 현재 2학년인 선명훈입니다. 군대를 전역해 현재 23살이며 전남 장흥 출신이고, 장흥에서 초중고를 졸업했습니다.

Q. 꿈청춘 에세이 공모전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쓴 얘기가 수상하게 되니 참 기분이 모합니다. 저는 잘난 점은 정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실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점을 어떻게 보면 좋게 봐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타지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부터 거기서 지내던 사람들보다 정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연고지를 떠나게 되면 많이 외롭고 적응하기 힘들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래도 저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어서 이렇게 1등으로 골라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고 그런 점을 보면 나름 공모전에 참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에세이 내용 중 입시 준비 과정과 면접 에피소드가 인상적이던데요.

네. 저는 공부할 때 보통 사람들이 겪는 것과 다른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 많은 학원과 입시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와 입시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간 과거 시절 호통불 켜고 하는 독수공방 타입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하러 굳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따로 독서실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집에 있던 참고를 정리하고 내부에 도배를 다시 한 다음 거기에서 정말 3년간 지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정말 힘들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공부하다 보면 주변에 공부에 관해서 정보를 얻을 곳이 아무 곳도 없을 수 있고 마음 맞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수만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친구들과만 대상으로 경쟁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야가 좁고 목표치가 낮을 수도 있기에, 인터넷으로 다양한 수기들을 읽고 전국권의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연습을 했던 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인터넷의 경쟁자들과 서로 경쟁하고,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카페에 인증을 올리기도 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졸업까지 페이스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다가 보면 이제 입시에 다가갈수록 저의 스펙과 상황에 한정된 특정 정보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 시절이 저의 고등학교 시절 중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수시 6개만이 아니라, 경찰대까지 준비하다 보니, 체력과 더불어 별개 시험 1, 2차를 준비해야 했기에 이때 굉장한 오버페이스를 지속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울대 면접 날짜를 착각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잘못하면 면접을 보지 못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극적으로 전날 밤에 서울대 면접 날짜를 알게 된 것은, 역시나 카페에서 서울대를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 덕이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하면서 최대한 달릴 수 있는 페이스의 80퍼센트 정도를 유지하면서 어떤 일이든 해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입시와 학업 생활이 혼자서 하기는 많이 힘든 일이니, 최대한 자신과 비슷한 동료들을 많이 찾아서 주변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텀버거리는 습관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맡겨줘도 직접 듣지 않고, 꼭 친구에게 물어봐서 알아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서울대 면접 날짜를 착각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을 둬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입시는 입시철이 아닌 시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입시 철에만 정보를 알아내기엔 상당히 힘듭니다.

Q. 선명훈 학생은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굉장히 큰돈입니다. 물론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용돈을 토대로 영위해나가기에, 장학금이 추가적인 용돈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반에 부모님께 받은 돈 이외에는 웬만하면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쥐어주신 돈이 작지는 않았기에, 제가 능력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입학 초에는 아무래도 확실히 경제 관념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한 것은 최대한 가진 돈을 원상 유지하는 하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서울대 입구의 월세 보증금이 오백 정도였는데 그래도 그 이상은 그래도 유지하자는 것을 목표로 잡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입생으로서 누릴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관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유지하기가 힘들기에, 군대를 간 것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돈 모아서 나왔습니다. 참 팍팍하게 지냈던 것 같기는 한데, 장학금이 없었더라면 아마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장학금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취하게 됐을 때, 필요한 돈인 오백은 아마 장학금으로 순수히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에세이 내용 중 '대학은 도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선명훈 학생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 점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가면 고민이 끝나겠지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많이 지난 얘기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대략적 방향만을 정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과 제가 가진 재능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 와서 배운것들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과 나의 삶을 즐길 방법을 알아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창한 대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



고, 저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게 되었던 스포츠인 테니스를 여가로 칠 여유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꿈입니다.

Q. 꿈을 키워가는 지역의 후배들을 위해 조언해주신다면?

현재 세상은 격변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산업이 흥망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감히 어떤 조언을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현재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너무 먼 것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그를 배움으로 있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달려오다가 길을 잃으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멀리 남들이 좋다는 것을 쫓아오지 말고 자신이 가장 행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너무 남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도전하니 길은 열렸습니다. 특히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도움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 미래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어려운 시기 꼭 잘 이겨내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꿈청춘 에세이 공모전 ‘대상’ 수상 선명훈 학생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현재를 고민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명훈 학생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응원하겠습니다.



Section

02

인재육성

1. 찾아가는 멘토특강 꿈틀
2. 특별한 소풍
3.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4. 남도학 첫걸음
5.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6.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7.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1 찾아가는 멘토특강 꿈틀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대상 : 20인 내외 소규모 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주요내용 : 주제별 찾아가는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02 사업 내용

- 운영형태
 - (진 흥 원) 멘토링 개최지 선정, 멘토 섭외, 특강 준비 및 운영
 - (기관·단체) 멘토링 신청, 멘토 특강 운영 지원

03 추진 성과

○ 2021년 특강 추진(6개소)

연번	특강일시	기관명	강연주제	강연자
1	9. 17. 16:40	목포YMCA	소통을 위한 리더십	정문기 회장
2	9. 27. 10:40	고흥백양중학교	아프리카, 한 번쯤 내볼만한 용기	최세화 대표
3	10. 13. 13:25	두륜중학교	청소년을 위한 슬기로운 법 생활	박준영 변호사
4	10. 27. 14:00	지오초등학교	쓰레기 없는 일상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배민지 대표
5	11. 1. 15:00	명덕초등학교	당신의 초능력은 무엇인가요?	이정욱 국가대표
6	11. 2. 10:00	지오초등학교	내가 잘 배우는 방법	류정희 교수

2 특별한 소품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11.
- 사업방법 : 공모를 통한 대상 학급·학교 선정
- 지원내용 :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비 지원

02 추진 성과

○ 2021년 특별한 소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추진

연번	보조사업자	대상	지원내용	비고
1	광양북초등학교	초 4학년	영산강 종주 라이딩	
2	광양북초등학교	초 5~6학년	예울마루 뮤지컬 관람	
3	광양중동중학교	고 3학년	완도수산고 견학 및 청해진호 체험	
4	광양중진초등학교	초 4학년(1)	순천만 잡월드, 빙상장 체험	
5	광양중진초등학교	초 4학년(2)	예울마루, 아쿠아리움 등 여수 문화예술 체험	
6	광영고등학교	고 1학년	스포츠팀 경기 관람 문화행사 지역 거점 국립대 방문 진로탐색	
7	다압초등학교	초 1~6학년	아쿠아리움, 유월드 체험 학습	
8	목포YMCA	초 4~6학년	전주 역사탐방 및 체험 활동	돌봄시설
9	지명중학교	중 1학년	목공체험, 생물자원관 관람 등	
10	지오초등학교	초 1~6학년	미디어 리더러시 체험활동	대안학교
11	화순초등학교	초 1~6학년	DIY 소품만들기 체험	

03 참여자 소감

다압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이번 특별한 소풍에서 아쿠아리움 바다 생물들의 생태를 알게 됐고, 친구들과 루지를 타면서 행복한 체험을 했어요.

다압초등학교 교장

특별한 소풍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의 문화체육 시설의 이용을 통해 교육가족의 행복의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 다압초등학교



○ 화순초등학교



3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지원대상 : 1년 이상 시민교육 경험 및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 모집방법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주요내용 : 도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시민참여 평생교육 활성화

02 사업 내용

- (사업공모)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운영기관 선정
 - 모집기간 : 2021. 3. 15. ~ 2021. 4. 11.
 - 모집기관 : 5개소 내외
 - 접수기관 : 13개소
 - 지원내용 :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컨설팅) 공모 선정기관 대상 사업컨설팅
 - 일시/장소 : 2021. 4. 28. 13:30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참여대상 : 시민교육 공모 선정기관 관계자 10명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운영 지침 안내 및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교육운영

03 추진 성과

○ 시민교육기관 5개소 / 55백만원 지원

기관명	프로그램명
목포YMCA	시민참여를 통한 평화로운 지역사회 만들기
순천YWCA	일상의 변화, 나부터!
희망나눔센터	마을시민교육공동체 교육
(사)길목 아카데미	전남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아카데미
(사)광양만녹색연합	녹색시민교사 양성교육

○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

- 공동체 의식, 사회참여, 시민학습, 시민역량 개발 등
- 일상의 다양한 문제, 이슈 관련 교재 개발/목포대, 40백만원

04 참여자 소감

목포YMCA / 학습자

몇 개월에 걸친 민주시민교육은 참 대단했다.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직접보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전남에 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다.
 변화의 시작에 물꼬가 트였고,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지역사회에 펼쳐나가 그 자치들이 사회를 변화 시키는 그때를 기대해본다.



○ (사)길목 아카데미 / 전남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아카데미



○ 목포YMCA / 시민참여를 통한 평화로운 지역사회 만들기

4 남도학 첫걸음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방법 : 위탁운영
- 사업규모 : 교재 개발 1식, 프로그램 운영 6개소
- 주요내용 : 남도학 프로그램 교재 보급 및 운영비 지원

02 사업 내용

- 모집기간 : (상반기) 2021. 3. 12. ~ 2021. 4. 11.
(하반기) 2021. 5. 18. ~ 2021. 5. 27.
(선정결과) 상반기 4개소, 하반기 2개소 선정
- 운영기간 : 2021. 4. ~ 12.
- 교육장소 : 화순향교 등 6개 기관
- 교육방법 : 남도학 강의 및 현장탐방



03 추진 성과

- 남도학 6개소 / 90백만원 지원

기관명	프로그램명
목포대 평생교육원	남도학과 문화콘텐츠
(사)지방활력연대	남도학(마한사) 연구활동가 양성과정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의향(義鄕), 예향(藝鄕)으로 일컫는 남도정신
함께하는 남도학(여수)	남도의 정신, 역사문화를 담다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이야기로 푸는 남도의 강과 바다와 섬, 그리고 사람들
화순향교	남도학 지역문화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 도민이 꼭 알아야 할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담은 남도학 첫걸음 교재 보급으로 전문적, 체계적인 교육 추진
- 도내 대학 등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의 교육 참여 교육 접근성 강화(6개소)
- 도민들이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 마련(240여 명 참여)



○ (사)지방활력연대 / 남도학(마한사) 연구활동가 양성



○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 이야기로 푸는 남도의 강과 바다와 섬, 그리고 사람들



○ 함께하는 남도학(여수) / 남도의 정신, 역사문화를 담다



○ 목포대 평생교육원 / 남도학과 문화콘텐츠

5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1.
- 지원대상 : 청년으로 구성된 20개 팀(3인 이상)
- 모집방법 : 진흥원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사업내용 : 도내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공헌 과제를 선정하여 실현해보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02 사업 내용

- 모집기간 : 2021. 4. 26. ~ 2021. 5. 10.
- 접수인원 : 68개팀
- 발표심사 : 2021. 5. 25. / 20팀 합격
- 모집인원 : 20개팀
- 서류심사 : 2021. 5. 18. / 25팀 합격
- 프로젝트 운영 : 2021. 6. ~ 11.

03 추진 성과

○ 목포청년네트워크 등 20개 팀 선발 및 지원

연번	팀 명	연번	팀 명
1	713뮤직앤미디어	11	얼스앤어스협동조합
2	나주혁신도시로	12	영암청년의이야기(영청이)
3	남도전통문화연구회	13	이거라도해보게(이해)
4	남도청춘 팜(farm)	14	이라고멋진곡성
5	담튜브	15	이야기를 담다
6	도래 ('오래오래 살라'는 순우리말)	16	장성엘로!
7	동백꽃 필 무렵	17	찬누리
8	목포의 소금 'NA'	18	청포도
9	목포청년네트워크	19	파머스핏
10	문화마실이야기	20	함평리서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팅 수시 지원

- 코로나 상황에 맞춘 온라인 컨설팅 지원
-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 및 상담 서비스(전액 무료)

6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
- 지원대상 : 도내 기업 CEO, 기관단체장, 시장·군수, 도의원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사업내용 : 특강 및 조찬을 겸한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02 사업 내용

- 모집기간 : (제1회) 2021. 3. 8. ~ 2021. 4. 5.
(제2회) 2021. 11.3. ~ 2021. 11. 22.
- 모집인원 : 각 회차당 100명 이내
- 접수인원 : (1회) 62명 (2회) 56명

03 추진 성과

- 제1회 경제마당 개최(4. 15. / 광양 / 62명)
- ‘바이러스가 몰고 온 경제학 V-nomics’ 김난도 서울대 교수
- 제2회 경제마당 개최(12. 1. / 나주 / 56명)
-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지혜’ 엄길청 교수

04 참여자 소감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지역사회를 이끌 리더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진 상황에 국내외 주요 경제 흐름을 읽고 전남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제1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 제2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Section 2 인재육성

7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8. ~ 12.
- **사업대상** : 도내 사회단체 대표 및 구성원
- **사업내용** : 도내 사회단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 증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02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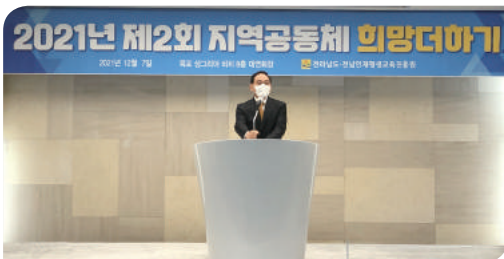
- **모집공고 및 접수**
 - (제1회)2021.10.13.~2021. 10.22.
 - (제2회)2021.11.16.~2021. 11.30.
- **모집인원**
 - (제1회) 49명 / (제2회) 100명
- **아카데미 운영 내역**
 - ① 제1회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마을기업)
 - 일시/장소 : 2021. 10. 27. 9:30 ~ 12:00 /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4층 컨벤션홀
 - 참석인원 : (거리두기 3단계) 도내 마을기업 대표 및 구성원 49명
 - ② 제2회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여성단체)
 - 일시/장소 : 2021. 12. 7. 14:00 ~ 17:00 / 목포 상그리아호텔 8층 연회장
 - 참석인원 : (일상회복 1단계) 도내 여성리더 및 여성단체 구성원 88명

03 추진 성과

- **제1회) 전남에 알맞은 홍보마케팅 방법과 인문·심리학 특강 진행**
 - (전문강사) 김정록 교수 “홍보마케팅 프로세스와 성공전략”
 - (명사특강) 김정운 교수 “인문학·심리학에 기반한 현대인의 행복조건”
- **제2회) 웃음을 통한 삶의 노하우와 여성리더로서의 진취적 마인드 전수**
 - (전문강사) 김영식 교수 “얼굴이 펴야 인생이 된다, 사람을 살리는 웃음”
 - (명사특강) 이호선 교수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 내 인생을 사는 법”



○ 제1회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 제2회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Section 2 인재육성

Section
03

평생교육

1. 문해교육센터 운영
2. 생활 밀착 기술 교육
3. 평생학습동아리
4.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5.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6. 동네방네 배움툼 운영
7.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교육
8. 평생학습 수기공모전
9. 전남 평생학습 실태조사
10.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 캠페인

1 문해교육센터 운영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방법 : 직접추진 및 공모
- 사업규모 : 찾아가는 생활문해(20개 시군), 문해의 달(1식), 부교재 개발(1식), 기관 지원(10개소), 교원양성·보수교육(3회), 현황조사(1회), 교육부 공모 지원(1회)
- 사업예산 : 434백만원(국비 95, 도비 339)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육 및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02 사업내용 및 추진성과

| 문해교육 학습자용 앱북(app book) 제작 |

- 사업목적
 - 우리 도의 높은 비문해율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공으로 문해 학습자 등 취약계층의 문해교육 참여 분위기 확산 필요
 - 우리 도의 문해학습자들이 앱으로 어디서든 공부하고, 주변의 문해교육 기관 정보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
- 사업기간 : 2021. 5. ~ 12.
- 사업내용
 - 문해교육 어플리케이션 앱(app) “남도문해업UP” 개발
 - 문해학습자의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전남형 콘텐츠로 제작
- 운영결과
 - 문해교육 앱 콘텐츠 「남도버전 이야기책」 5개 기관 참여 (제작편수 총 10편, 참여 학습자 50여 명)
 - 문해 학습자들이 직접 쓰고, 각색한 이야기를 어플리케이션에 오디오북·전자책 형태로 구현하여 수록

|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 운영 |

- 사업목적
 - '글자해득' 교육을 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교육'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육' 지원
- 사업기간 : 2021. 3. ~ 12.
- 교육장소 : 시군 문해교육 기관 28개소
- 교육대상 : 도내 문해학습자 380여 명
- 지원범위 : 생활문해교육(경제, 역사, 문화예술) + 학습꾸러미
- 추진성과
 - 문해학습자들이 일상에 경험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감 향상
 - 역사와 문화예술 주제로 문해학습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힘

|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 사업목적
 -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맞아 비문해 성인의 문해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시화전을 통한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 확산
- 추진방향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순천)' 및 지역의 문학 축제인 '목포문학박람회(목포)'와 연계·추진하여 홍보 강화
- 추진일정

연번	일정	장소
1	10. 7. ~ 10.	목포문학관박람회장(목포문학관 일원)
2	10. 21. ~ 28.	전라남도청 1층 윤선도홀
3	11. 5. ~ 8.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장(순천생태문화교육원)

- 추진성과
 - 29개 문해교육 기관 및 485명 문해 학습자 참여(수상자 58명), 도민 6,400여 명 참여
 - 2021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우수작품 시화집 제작·배포(160여권)



○ 1차 목포문학박람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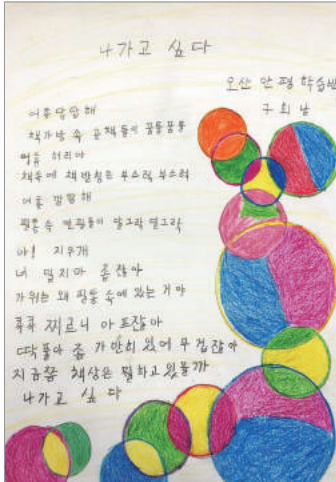
○ 2차 전라남도청 윤선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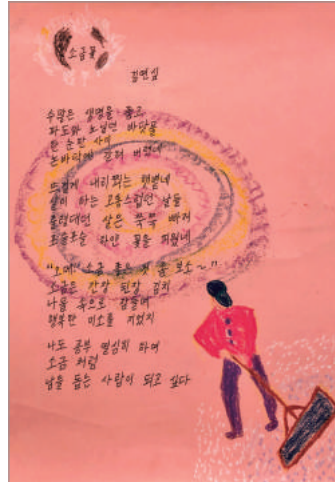
○ 3차 평생학습박람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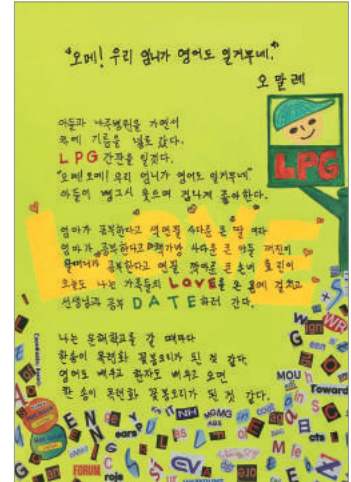
2021년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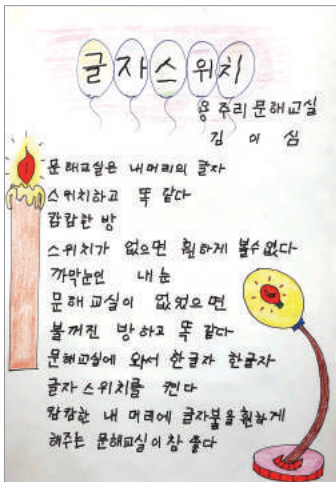
○ 국회 교육위원장상
나가고 싶다
구희남(곡성군 문해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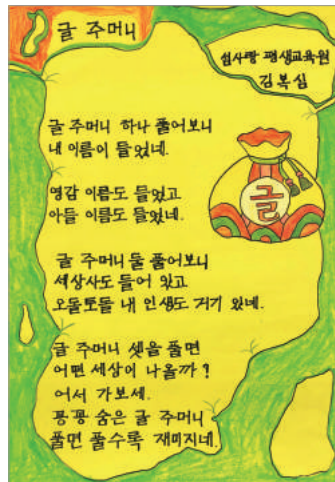
○ 국회 교육위원장상
소금꽃
김연심(영광공공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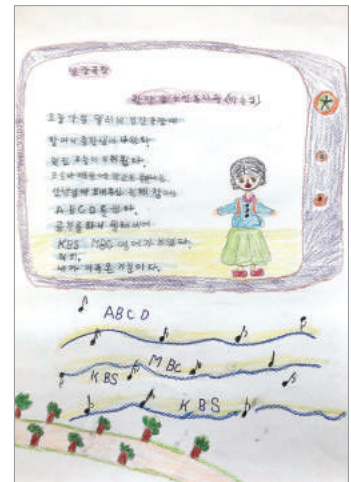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
“오메! 우리 엄마가 영어도 일거부네.”
오말레(영암군 왕인문해학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글자스위치
김이심(여주시 문해교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글주머니
김복심(삼사랑 평생교육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인간극장
박순임(광양시 문해교실)

| 문해의 달 행사 -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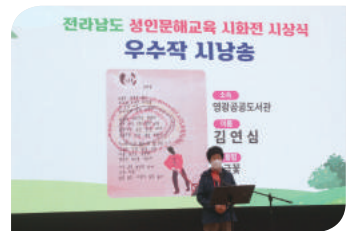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문해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 격려
- **추진방법** : 코로나19 상황으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으로 대체(온·오프라인 병행)
- **일시/장소** : 2021. 10. 21. 14:00 ~ 15:00 / 전라남도청 4층 왕인실
※ 유튜브 생중계
- **참여인원** : 총 345명(전남지역 기초지자체 및 문해교육기관 등)
※ 오프라인 참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40명(수상자 및 인솔자), 온라인 참석은 유튜브 스트리밍 수 포함
- **추진성과** : 코로나19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문해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자긍심 고취



○ 시상상식



○ 상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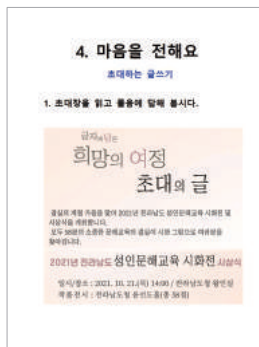
○ 우수작 시상송

| 전남형 문해교육 부교재 개발·보급 |

- **추진목적** : 문해학습자의 학습 이해도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업내용**
 - 우리 지역 학습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역 예시 반영
 - 문해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 교재
- **배부처** : 도내 문해교육 기관 교사 및 학습자 1000부
- **추진성과** : 도내 시군 및 문해교육 기관 출석 학습자, 코로나19로 자택수업 중인 문해 학습자 대상 부교재 발송



○ 부교재 수록 내용



| 문해교육 기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직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단 교실 증가에 따라 민간 기관 공모 확대를 통해 도민의 문해교육 참여 지원
- **사업기간** : 2021. 4. ~ 12.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문해교육 기관 선정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문해교육 기관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 10개소
- **주요내용**
 - 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민간 문해교육 기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 기초문해교육을 비롯해 생활문해, 문화예술 접목 문해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기초문해 + 생활문해(금융, 안전, 핸드폰 사용 등) + 문화예술(연극, 사진, 미술 등)
- **추진성과**
 - 기초문해교육, 생활문해교육,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도민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 및 문화예술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
 - 도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대상 문해교육 운영 예산 지원으로 문해학습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10개소 지원 /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100여 명)



○ 낭독공연 개최



○ 사진전시 개최



○ 미술전시 개최

| 문해교육 현황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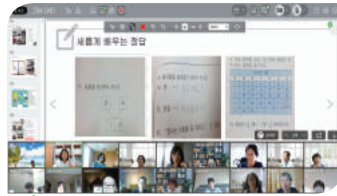
- **조사목적** : 문해교육 정책 기초자료 확보 및 정보 제공
- **조사기간** : 2021. 5. 10. ~ 6. 30.
- **조사대상** : 등록 평생교육기관(137개) 중 18개 기관, 교사 61명, 학습자 114명 대상
 - * 조사시점 문해교육 운영 기관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대면조사
- **조사내용** :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학습자 기초현황 및 요구사항,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 등 현황조사
- **추진성과**
 - 도내 문해교육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해교육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보고서 발간 후, 도내 시군 및 문해교육기관에 발송(50여권)

| 문해교육 교원연수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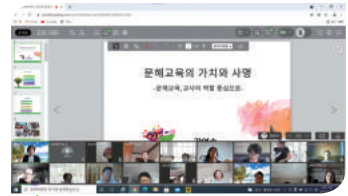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양성
- **사업기간** : 2021. 6. ~ 8.
- **연 수 명** :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 **교육내용** : 문해교육개론 외 5개 과정 ※ 온라인교육으로 실시
- **추진성과** : 초등 문해교육 교원연수 37명 이수예정
※ 코로나19로 현장실습(15시간) 2022년으로 연기



○ 문해교육 네트워크



○ 문해교육 학급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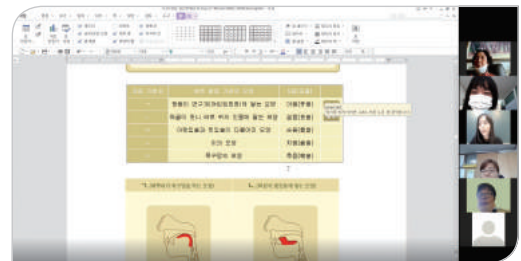
○ 문해교육 가치와 교사사명

| 문해교사 보수교육 운영 |

- **추진목적** : 문해교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일시** : (1차시) 2021. 11. 29.(월) 10:00~17:00 / 5시간
(2차시) 2021. 12. 6.(월) 10:00~17:00 / 5시간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원격 화상교육/Zoom)으로 실시
- **교육대상** : 전라남도 문해교육 활동(예정) 중인 문해교육 교·강사
- **교육내용**
 - 기관장에게 듣는 문해교육 경영이야기/최유경(안양시민대학장)
 - 훈민정음의 이해/이수연(국립국어원 연구원)
- **추진성과**
 - 모집인원 81명, 이수인원 69명(1차 : 33명, 2차 : 36명) / 전체 이수율 85%
 - 문해교육 현장 중심 교수법 교육으로 지역 문해교사의 전문성 및 자신감 향상 계기 마련



○ 문해교사 보수교육(온라인)



○ 훈민정음의 이해

03 참여자 소감



○ 금융문해 학습자 소감



○ 역사교육 학습자 소감



○ 학습꾸러미

글자를 넘어 일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

김순자(경제이야기 참여 학습자)

교실에서 테이블릿으로 돈 찾는 방법을 실습하고 농협에 가서 기계로 이제 돈을 뽑아 본다 돈이 “뽕”나오더라고요. 그런게 정말 좋았어요.

권학심(역사이야기 참여 학습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는 그냥 듣고 흘렸는데 이제 배우니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이 나오는구나’하고.

서순자(문화예술이야기 참여 학습자)

오늘 장구수업도 태어나서 처음 장구채를 잡아보니까 진짜 즐겁고 재밌습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술극장 창고 / 문해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예술극장 창고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세상과 소통하기’ 컨셉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초문해교육과 함께 ‘정보교육-핸드폰 활용하기’, ‘문화예술교육-낭독공연 반진고리 속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문해교육 학습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 호응해주셨습니다. 특히 사진 전시와 낭독공연은 움츠렸던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해학습자들 뿐 아니라 가족, 이웃들이 함께 문해교육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문해학습들의 생활능력의 향상을 돕고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깊은 사업이었습니다.

순천 글사랑회 / 문해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순천 글사랑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고령의 학습자들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 문해교육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차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차흔테라피를 활용한 한글 수업’과 ‘글자, 그림을 그리다’ 수업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자그림 작품을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도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시했던 경험은 문해학습자들의 행복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해교육 학습자용 앱북(app book) 제작

김유자(문해교육 참여 학습자)

지금 이런 길이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배울 수 있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점점 즐겁고 지금은 제가 용 그리는 게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정해정(문해교사)

처음에는 과연 전래동화 만들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니까 너무 뜻깊고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작업을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 남도문해업UP 앱북(app book)

2 생활 밀착 기술 교육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기관 선정
- 사업규모 : 기관 5개소(기관당 7,000천원)

02 사업내용

- 중·장년층 자립적 경제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기술 교육 지원
- 생활밀착형 기술 교육을 통한 동아리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연계 제공

03 추진 성과

- 자격증 취득(80명), 사회참여활동(74명), 직업체험활동(16명)

기관명	프로그램명
(주)해양관광자원연구소(MTR)	해양관광코디네이터 양성
협동조합 성안사람들	리폼새품 정리수납전문가
광양평생교육개발원	움직이는 그림인형극 패널시어터 심화과정
(주)우리들놀꽃	오감놀이 교육지도사 양성
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	홈패션교실



04 참여자 소감

해남 우리들놀꽃 / 학습자

오감놀이교육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배우면서 우리 가족에게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육으로 가족에게 웃음을 주고, 많은 분들께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기를 기다려 봅니다.

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 / 담당자

열정을 가지고 재봉틀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좋은 만큼 재봉틀을 배우고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완성도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다소 부족한 기술이지만 한땀 한땀 만든 작품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기쁨도 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홈패션교실)



○ (주)해양관광자원연구소(MTR)
(해양관광코디네이터 양성교육)

3 평생학습동아리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학습동아리 선정
- 사업규모 : 28개 학습동아리(동아리별 1,000천원)

02 사업 내용

-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육성하여 도민의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03 추진 성과

○ 영암 도깨비 그림책 동아리

-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연구동아리입니다. 온 가족이 즐기는 그림책을 목표로 다양한 그림책 놀이연구와 팀 역량강화를 위한 함께하는 학습활동의 기회였습니다.

○ 광양 손수메이드 원예 동아리

- 환경에 관심 있는 학습자들이 모여 환경과 원예교육 학습활동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공통적인 생각과 공감대가 있는 주제를 함께 의논하며 배움의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장흥사랑봉사단 동아리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얼어붙은 연말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아 행복했습니다.

○ 강진 우쿨렐레 동아리

- 쉬운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직접 노래하며 우쿨렐레와 통기타로 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하였습니다. 퇴근 후 부담없이 들러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통기타와 우쿨렐레를 배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겁게 웃으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있었습니다.

4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01 사업내용

- 행사명 :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운영기간 : 2021. 11. 5.(금) ~ 11. 8.(월) / 4일간
- 주제 : 내 삶의 미래! 전남! 평생학습에서 찾다!
- 장소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
- 운영내용
 - 교육부에 주최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 도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홍보
 - 전남 평생교육 홍보 및 시군 체험 프로그램 운영

02 시군별 운영 프로그램

○ 시군별 평생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프로그램
나주시	• 내 미래의 인생 명함 만들기
곡성군	• 규방공예(항낭 풍경 만들기) / 목공예(인센스 홀더 만들기)
강진군	• 내 삶에 스며든 작은 민화
담양군	•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미니정원 홈 가드닝
여수시	• 천연염색으로 만나는 쪽빛바다
장성군	• 슬기로운 목공DIY 카빙생활
고흥군	• '내가 만든 특별한 한잔' 홈카페 체험
영광군	• 종이의 숨결 한지공예
광양군	• Sunshine 무드등
영암군	• 단추액자 만들기
화순군	• 라탄바구니만들기 / 우드 썬캐처
함평군	• 제로웨이스트 천연 행주
순천시	• 오밀조밀 스물 행잉 가든
해남군	• 손놀이터와 함께하는 탄생석 은팔찌
구례군	• 목재체험 '나무랑 놀자' / 압화자개모빌 만들기
목포시	• 목포 대표 주전부리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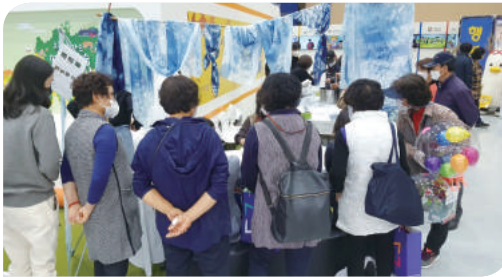
3년 만에 개최되는 전국 최대의 평생학습 박람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전달하는 계기

주제 평생학습! 내 삶의 미래를 찾다!
기간 2021. 11. 5.(금)~ 8.(월) / 4일간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
주최 교육부
주관 순천시,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

- 기념행사
- 홍보전시
- 주요행사
- 체험행사
- 특별행사
- 외부박람회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포스터



○ 전라남도 시군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방법 : 직접 운영
- 지원내용 : 강사비, 재료비 등 학습운영비 지원
- 주요내용 :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내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및 도민의 인식 제고

02 사업 내용

- 12개소 / 159명 참여
 - (문화예술) 원예치료, 토탈공예, 목공예, 요리교실, 가죽공예, 댄스, 태권도 등
 - (장애특화)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미술·음악심리재활, 함께하는 수어교육



○ 댄스



○ 가죽공예



○ 공예



03 참여자 소감

함평 가족공예 강사

집중력을 키워주는 감각자극을 통해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재단과 바느질을 경험하며 참여자들의 자신감을 향상 시켰습니다.

화순 토탈공예 강사

“다양한 공예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

작품을 완성해 나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학습자를 보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장흥 공예 강사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생활 변화로 즐거운 학습시간이었습니다.



6 동네방네 배움툼 운영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방법 : 직접 운영
- 사업규모 : 54개소
- 주요내용 : 생활권 유휴공간(공공시설, 카페, 작은도서관 등)을 평생학습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일상학습 지원을 위한 근거리 평생학습 기반 마련

02 사업 내용

- 유휴공간이 있는 시설을 발굴하여 평생학습활동 공간으로 활용
 - (공간나눔) 생활권내 유휴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학습공간 활용
 - (학습나눔) 공유공간 활용한 소그룹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 및 소외계층 방문 실천학습 운영

03 추진 성과

- 도민의 학습공간 '배움툼'으로 지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동네학습공간 54개소 / 작은도서관, 카페, 공방 등
 - 실용생활 중심 평생학습 참여 445명 / 나눔활동 47개소
 - 배움툼 소모임 : 학습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등



04 참여자 소감

함평 토우만들기 학습공동체

“우리마을 문화 생활의 중심지를 꿈꾼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에 갇혀있는 마을 가족들에게 ‘배움툼’ 사업을 통해 ‘마을공방’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문화생활 공간 및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최근 청장년층이 늘면서 정착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노력이 마을에 필요했다.

배움툼 공간을 홍보하니 생각보다 많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동서남북 흩어져 있던 이들이 만나다 보니 처음보는 식구들도 많았다. 토우를 빚으며 같은 지역, 같은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나누고 격려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기대 그 이상이었다.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강진 기초 제빵수업 / 학습자

생활권내에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일일 빵만들기 강좌를 통해 만든 빵을 소외기관에 나눔하는 활동도 처음 해보았습니다. 모양이 예쁘지는 않지만 건강한 빵에 대한 이해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순 오카리나 / 학습자

“코로나19 오카리나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악기 연주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즐겁게 배우고, 활동도 뽐내고 복지센터도 방문하여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순천 공예공방 / 공간 대표

공예공방을 운영하며 동네 가까운 곳에서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고, 공간대표로서 지역주민들과 재능과 공간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목포 원예강좌 / 학습자

평소 원예강좌에 관심을 가지던 중 홍보글을 보고 강좌를 신청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 도심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꽃과 식물을 접하면서 마음을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나만의 화분도 만들어 보면서 하나의 재능을 배웠다는 만족감도 컸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는 즐거움과 함께 코로나19로 직접 만든 화분을 소외계층에 전달하며 보람과 지식을 나눌 수 있었던 학습활동이었습니다.



배움틀 학습활동



배움틀 소모임

7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교육

01 사업 개요

- **교육기간** : 2021. 8. ~ 10.
- **교육방법** : 비대면(쌍방향 실시간) 교육 및 대면 교육
- **참여대상** : 도내 평생학습 활동 강사 및 관계자
- **주요내용** : 평생교육 트렌드 및 평생학습 정보제공 등

02 사업내용

- 평생교육강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있는 평생교육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변화하는 평생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권역별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03 추진 성과

- **권역별** : 서부권(2), 동부권(1), 중부권(2) / 총 5회
- **교육인원** : 총 164명

교육일	지역	참가인원	교육주제 / 장소
8.18.(수)	목포	30명	• 매력적인 강의 전달기법 • 근대역사문화 스토리텔링 / 목포시네마M
8.25.(수)		39명	• 평생학습! 과거를 벗고 최선을 입자 • 평생학습시대! 시민참여교육 어때?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8.27.(금)	광양	35명	• 알아두면 쓸모있는 평생교육 잡학다식 / 전남도립미술관
9.1.(수)	나주	30명	• 설득력있는 강의계획서 작성법 • 숲체험을 탐하다! / 나주 숲체원
9.8.(수)	광양	30명	• 평생학습 강사 역할과 가치 이해, • 큐레이터가 들려주는 미술관 이야기 / 전남도립미술관



○ 평생학습 강사학교



8 평생학습 수기공모전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7. ~ 12.
- 추진방법 : 직접운영
- 사업예산 : 3.6백만원
- 주요내용 : 평생학습 참여 도민을 대상으로 참여 수기 공모 및 시상



02 사업 내용

- 2021년 공모 주제 : “배움으로 키워가는 희망찬 내일”
- 도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체험 수기
- 평생학습의 참된 가치를 널리 알리고 평생학습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내용

03 추진 성과

- 수상인원 : 13명

수 상	작 품 명	성 명
최우수상	• 70세 학생	신 속 자
우수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가져다 준 꿈꾸는 인생 70	김 인 속
	• 쉼 위 발레?	김 승 민
장려상	• 평생교육은 매일의 심장이 더욱 강하게 뛰게 하는 희망	김 아 연
	• 나는 대한민국의 문해교사다!	송 기 술
	• “우리 해심이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양 해 심
	•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는 ‘우크렐레’ 수업	정 삼 례
특별상	• ‘인연’이란 이름의 캘리그래피	전 셋 별
	• 함평 ‘글담캘리’	나 금 복
	• 엄마의 희망찬 내일은 ‘늦깎이 배움 꽃’으로 피어나	김 애 란
	• 내 나이 56살(“배움으로 키워가는 희망찬 내일”)	강 은 희
	• 평생학습으로 인생2막을 설계하다	최 쌍 우
	• 연필로 있다	이 재 진



70세 학생

신 속 자

8년 전, 딸의 소개로 목포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도서관의 평생학습 강좌는 많은 과목이 있었다. 그 중에 한국사, 합창교실, 요가를 선택해서 일주일에 4일을 날마다 도서관으로 출근했다. 기타, 가야금, 영어, 한지공예, 우쿨렐레, 민화 등 도전해보고 싶은 많은 과목이 있지만 한 사람당 3개의 강좌만 참여할 수 있었다.

세상 정말 좋아졌다. 돈 하나도 안들고 이렇게 좋은 강좌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기뻐다. 젊었을 때는 살림도 넉넉하지 못해 내가 무언가 배우고 싶어도 돈 주고 다니기에는 많이 벅찼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배울 기회를 알게되어 복받았다고 생각했다. 집과 도서관이 멀어 버스를 두 번 갈아 타야 갈 수 있고, 1시간 걸리는 거리지만 8년째 열심히 다니고 있다.

아침에 시원 바람이 부는 시간에 가방을 챙겨 도서관에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빼고 날마다 열심히 다녔다. 내가 아는 이웃들은 어디로 출근하냐고 묻기도 한다.

직장생활하는 딸들을 대신해 손자 셋을 10년 넘게 키웠다. 집에서 애기만 볼 때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다. 어디 외출이라고는 동네 산책 외에 생각도 안해보고 애들 뒷바라지만 했다. 그러다보니 자존감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외출하려면 입을 옷이 없어 난감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도서관에 입고 갈 예쁜 옷도 계절따라 장만하고, 책을 넣어 다닐 멋진 가방도 마련했다.

열심히 다니다 보니 강사님들과도 개인적으로 많이 친해져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닐 정도로 인간관계도 넓어졌다. 특히 합창교실은 가요, 동요, 가곡 등 여러 장르의 노래를 소프라노, 엘토로 나누어 배울 수 있었다. 나는 노래를 잘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내 목소리가 어우러져 합창이 완성될 때 가슴이 찌릿할 정도로 기쁨을 느꼈다. 살다가 이런 기분은 처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감동스러웠다.

합창단 활동으로 유달산 축제, 도서관 축제, 연산동 축제, 요양병원 공연 봉사 등 많은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 나이에 드레스 입고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다. 가족들도 꽃다발을 들고와 축하를 해주었다. 지휘선생님, 반주선생님과 많은 추억을 쌓았고,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중창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경험들이 움츠러들어있던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세상에 다시 맞설 용기를 준 듯 하다. 3년 전에는 혼자 동유럽을 다녀왔다. 패키지 여행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탑승수속도 혼자 해내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12일간의 여행을 무사히 마쳤다. 세상에, 나 혼자 해외여행이라니! 그간 생각지도 않았던 큰

Section 3 평생교육

일을 해내고 나니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도 생겨났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활동적인 강좌가 많이 축소되어 아쉽지만 현재는 마스크를 쓰고 김호민 선생님과 서예를 하고 있다.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5·18 민주화 운동 제 41주년 제19회 5·18 전국 전국회포대회에서 나를 포함한 5명이 입선을 하였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 가며 수백번을 써보았다. 그렇게 완성한 작품을 제출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고, 며칠 동안은 글쓰기가 싫을 정도였는데 입선소식을 들으니 믿기지가 않았다.

이제는 도서관 전시회에 낼 글씨를 연습 중이다. 딸들 집에 놀러갈 때도 서예가방을 가져가서 틈 날 때마다 써보고 있다. 9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 내 일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에 가는 날이 정말 즐겁다. 어디 아픈 곳이 없으니 1시간 걸리는 도서관 가는 길은 소풍날이나 마찬가지로 즐겁다.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붓글씨 쓰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서예동아리활동도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학생들이 거의 결석도 하지 않고 열심히 나온다.

또 셋별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모임도 나가고 있다. 정해진 책을 읽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돌아가며 소리내어 읽기도 한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책을 읽었지만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온다. 각자의 독후감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 또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한다.

나이 먹고 애들 다 결혼해서 분가해버리고 나면 우울하고 심심하다는데 난 심심할 틈이 없다. 집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부대끼며 바쁘게 살다보니 우울증에 걸릴 시간도 없다. 독서모임에서도 내가 제일 왕언니다. 서예도 마찬가지다. 어느 강좌에 가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 나이를 잊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뒤돌아 보아도 요즘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알차게 지내는 것 같다.

도서관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다. 도서관 아니면 마음 편히 갈 곳도 없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도서관에서 만난 동아리 사람들이다. 젊었지만, 집안 전사하느라 평탄치 않게 살아온 지난 날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100세 시대에 70세인 나는 평생학습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다. 평생학습의 진짜 재미를 알게 해준 목포공공도서관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가져다 준 꿈꾸는 인생 70

김 인 숙

아침에는 표고버섯농장을 돌아보는 일로 시작해서 택배 주문량을 포장하여 보내고 저녁에는 새로운 가공품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일들이 허리가 휘어지고 팔힘은 쏘-옥 빠지는 날들이지만 소득이 많아지고 꿈이 영글어 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다.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꾼이 되고자 표고농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 차가 되어간다. 어려운 표고농사를 지으면서 포기할까 생각했었던 아픈 시절이 있었다. 열정만을 가지고 시작하였던 첫해에 표고버섯을 한번 수확하고 온도를 맞추지 못해서 1만본 전량을 폐기처분 하였다. 주위 분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배지하우스를 임대하여 시작하였지만 끝내 표고배지는 속이 다 썩어 폐배지가 되어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같이 전량 밭으로 실려 나갔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다음 해 다시 참나무 원목 표고가 농사짓기에는 좀 더 쉬워 보여 논을 사서 하우스를 짓고 사람들 손을 빌려 4천본을 접종하여 하우스에서 원목표고 농사짓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그해 여름에 홍수로 인하여 종균작업을 마친 표고목이 물에 침수되어 4천본 전량이 흑탕물을 뒤집어 쓰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번에는 눈물도 나지 않고 하늘만 원망하는 절망 속에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때 이웃들이 찾아와서 산에서 노지표고를 해보라고 하면서 산 한자락을 내어주셨다. 감사한 마음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운을 차린 다음 절대로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표고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그다음 해 가을에 16개월의 긴 잠을 잔 표고목은 작고도 예쁜 표고들을 싹틔우는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다. 이에 ‘20일의 기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지키고자 상표등록하고 이후부터는 잠자는 시간만 빼고 거의 가공품 개발에 전념했다. 식품박람회도 많이 찾아다니고 표고버섯을 이용한 식단개발도 참여하여, 국제 통합의학박람회의 약이 되는 밥상 레시피 공모전에서는 금상을 받았으며 그다음 해는 농촌진흥청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선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농산물 유통 및 식품분야에 도지사 표창장도 받았다. 표고버섯이랑 브랜드를 알리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 부었다.

마음은 날마다 즐거웠고 다음 날이 기다려졌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허리가 아프고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겼다. 병원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병원을 다녀도 그때뿐이고 6개월 넘게 병원을 다니고 보니 마음까지 우울하였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표고농사일을 포기할 수 없고 저녁에 녀다운이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몸이 아파도 일에 처지는 나의 인생이 처량하면서도 너무 아까웠다. 이대로 농사일을 계속해야 되나 갈등마저 생겼다. 남편과 상의를 하니 남편이 먼저 경험하였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바로 면사무소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니 1주일에 두번하는 요가가 있었다. 저녁에 하는 것이라서 시간도 맞고 마침 몸도 안 좋은 상황이라서 나에게 딱맞는 프로그램이라 바로 등록을 마치고 열

심히 다녔다. 저녁밥이 늦으면 저녁도 먹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지각, 결석도 없이 참여하였다. 선생님도 처음하는 나에게 세심히 차근차근 잘 지도해 주셨다. 자세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잡혀갔고 어느 순간에는 기존에 다녔던 분들과 얼추 자세가 맞춰졌다. 마침 장흥 통합의학박람회도 열리는데 거기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연회가 열린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를 중앙에 자리를 잡아주어 맹훈련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요가를 열심히 하여서인지 허리의 통증이나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 신기했다. 몇 년째 요가를 하면서 표고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요가 회원 형님들을 보면서 나도 그리하리라는 다짐을 하며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통합의학박람회 시연회도 잘 마치고 표고한콘티가 25키로까지 하는데도 거뜬히 움직이는 농삿일도 재미나게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참 고마웠다. 그 이후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신청하여 제일 앞에 서서 열심히 하였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끼가 발산하여 나도 모르게 공연을 하게 되면 절로 흥이 났다. 춤바댄스를 할 때는 남편과 무대에서 같이 공연도 하였다. 더불어 부부사이도 더 돈독해졌다. 트롯장구를 배울 때는 흥이 절로 나는 그야말로 내 세상이었다. 장구를 처음 해보기에 장구치는 게 많이 서툴렀지만 날마다 땀이 나도록 집에서 맹연습하여 공연 때는 맨 중앙 앞자리를 서는 즐거움도 만끽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일하다가 짬짬이 트롯장구 가락을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두드리면서 무료함을 달래기도 하고, 뻣뻣해진 다리를 풀어주기도 한다. 요가는 집에서 저녁에 날마다 하고 있다. 1년을 배우고 나니 기본자세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요가를 하는 날과 안하는 날의 차이를 몸이 느끼고 있기에 건강을 위해서는 안할 수가 없다. 또한 주변에서 표고농사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본다. 본인들은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하여 병원을 다닌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요가자세를 보여주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알려 준다. 요가 전도사가 되었다. 물론 요즘도 가끔 손목이 아플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요가시간에 배웠던 손목을 위한 요가를 열심히 하게 된다. 집중시간을 갖다보면 통증이 서서히 사라짐을 느끼게 된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니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도 생기게 되어 마을이장도 하고 정남진장흥농협 농가주부모임에 가입하여 나눔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지은 표고농산물로 매년 기부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몸도 마음도 건강한 농촌생활이 되었다.

농사도 지으면서 지역에 봉사하면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연구하면서, 취미생활도 하는 바쁘면서도 알찬 농촌생활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목표를 위하여 인생 70이 되어도 꿈을 꾸리라는 가슴 벅찬 즐거움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빨리 시작되기를 기원해 본다.



셀 위 발레?

김 승 민

저는 곧 생애전환기에 접어드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30대를 출산과 육아에만 몰두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아픈 곳이 하나, 둘 생겨나며 우울한 마음이 들던 차 아이들이 좀 커서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작은 아이는 유치원에 들어가 오전에 자유시간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무얼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회원모집 홍보물을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발레’나를 설레게 한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친구들보다 몸이 유연하고, 율동에 무척 소질을 보여 운동회를 할 때마다 구령대에 올라 학년 대표로 율동을 선보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하며 발레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외벌이에 남매를 키우는 형편 때문인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기어코 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발레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머나먼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취미활동을 할 때도 요가나 수영 같은 대중적인 운동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발레를 시작해 볼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 어린아이들이 배우러 다는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신청을 망설이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성인을 위한 체형교정 발레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도 용기를 내어 신청해봐야지! 그렇게 저는 생애 첫 발레슈즈를 구입했습니다.

첫 수업 날, 나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인 게 무색할 정도로 20대부터 7,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발레를 배우기 전 부상 방지를 위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발레바운동을 한 다음 시작하는데 스트레칭조차 무척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앙 바, 앙 아방, 앙 오, 알라스공, 플리에~” 프랑스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을 마치자마자 인터넷에서 발레용어를 검색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렇게 저의 발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발레를 하다 보면 평소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돼서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근육통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통증도 잊은 채 우아하신 선생님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 하기 바빴습니다. 넓은 강당을 가로지르며 아라베스크 점프 동작을 연습할 때는 내가 이렇게 뛰어본 게 언제였는지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뛰어보겠어요?” 한 회원님의 말에 모두 “맞아! 맞아!”하고 웃으며 동감했습니다. 뻗뻗했던 동작들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손가락 동작도 시선 처리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수업 중단이 있기도 했지만, 동작을 잊지 않으려 집에서 틈틈이 복습하며 발레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재개된 수업! 여러 가지 스텝과 손동작을 배운 뒤 동작들이 연결되는 한 곡을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은 당시 연습하던 계절인 봄을 따라 Spring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자, 스프링 시작합니다.”하고 음악을 틀어주시면 우린 모두 각자 자리에서 대열을 맞추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발레 동작들을 이어갔습니다. 5분이 채 안되는 곡이지만 정말 발레리나가 된 것처럼 하나를 완성한 것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여름에는 두 개의 그룹으로 공연하는 두 마리의 백조라는 곡까지 완성할 수 있었는데 개인곡과는 다르게 호흡과 협동심이 필요한 그룹곡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연습을 하며 마치 공연작품을 준비하듯 연습에 몰두한 자신을 보며 그동안 잊고 지낸 열정이 다시 가슴속에서 피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레를 배우며 구부정한 체형도 교정되고 근육도 유연해짐과 동시에 단단해졌지만, 무엇보다도 즐거운 점은 음악에 맞춰서 리듬감을 살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엔돌핀이 마구 분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마스크 속에서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가끔 배시시 웃음이 새어 나올 정도로 행복합니다. 대부분 클래식 음악이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껴서인지 한 번씩 나를 괴롭혔던 우울감이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그때 신청을 망설여 시작하지 못했다면 발레는 여전히 나에게 먼 세상이었겠지만, 지금은 발레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시작을 망설이는 분이 계실까 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레 홍보대사가 되어 주변에 권유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같이 발레 배워보실래요?”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수상자 인터뷰

-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마음을 치유하다! 장려상 수상 정삼례 학습자 -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고자 도민의 평생학습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작 13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평생학습동아리 '들국화 소리사랑'으로 활동중인 정삼례 학습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우쿨렐레로 치유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정삼례 학습자의 평생학습 이야기를 이슈포커스 인터뷰에서 만나보세요.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우리지역 어르신들에게 보급하고, 노후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글로써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수상까지 해주시니 더욱 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Q. 우쿨렐레를 배우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제 나이가 벌써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랑 뒷바라지와 애들 키우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나에게 여유로운 삶을 산다는 건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있는 공허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공허한 시간을 메우는 건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많은 취미활동 중 작은 악기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할 수 있는 '우쿨렐레'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Q. 우쿨렐레 동아리 <들국화 소리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기초 수준에서 악기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배움 학습동아리 지원을 받은 지금 고급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 생일날 아침 출근 준비하는 남편에게 우쿨렐레 연주로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가정의 행복을 키운 회원도 있고, 저 또한 주말에 식구들이 모이면 큰아들과 함께 아들은 기타 연주를 하고 저는 우쿨렐레 연주를 하면서 함께 노래 부르며 가족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을 하며 변화된 점이 있다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우쿨렐레 연주와 노래소리로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당초 우쿨렐레를 배워 복지센터나 요양원 방문하여 악기 연주 재능봉사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방문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수 인원끼리 독거 어르신택을 방문하여 같이 노래를 하며 악기 연주를 들려드리고, 야외 정자에 운동나온 주민들과 같이 노래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임도 못가고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서 답답하지만 우쿨렐레 연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한바탕 하고 나면 답답했던 속이 땥 풀리는 기분입니다.

Q. 선생님께 평생학습이란?

생활비가 항상 빠듯하여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도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배움을 통해 취미활동을 하면서 산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되돌려 줄 수 있고 그로인해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무엇이든 배워보시길 추천합니다!

전라남도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장려상' 수상 정삼례 학습자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공허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시작했던 취미생활이 이제는 지역사회 회원활동으로 확산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나를 위한 평생학습에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으로.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배움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으니깐요!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9 전남 평생학습 실태조사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7. ~ 12.
- 추진방법 : 한국교육개발원(KEDI) 공동 조사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18조
- 조사대상 : 전남도민 만 25세 ~ 79세
- 사업예산 : 1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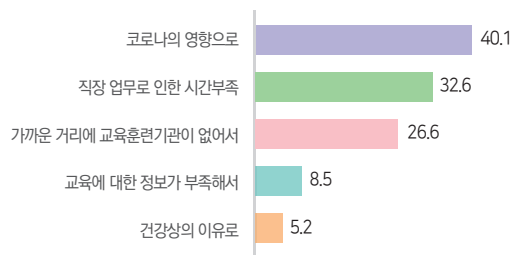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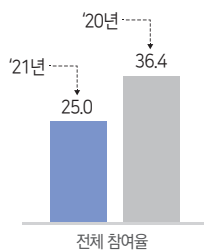
02 사업 내용

-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전남도민의 평생 교육 인식 및 참여현황을 조사(평생학습 참여실태, 학습환경, 학습활동 등)
- 매년 동일한 조사 방법(조사기간, 조사문항, 표본추출방법 등)으로 정확성과 신뢰도 높은 동향파악 및 추이분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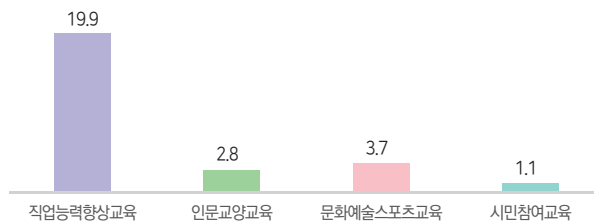


03 추진 성과

- 조사결과 ※ 응답자 수 : 864명
- 평생학습 참여율 : 25%(전년대비 ▽11.4%) / 불참여인 : 코로나의 영향(40.1%)



- 영역별 : 직업능력향상(19.9%), 문화예술스포츠(3.7%), 인문교양(2.8%), 시민참여(1.1%)



10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 캠페인

평생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과 4차산업혁명, 디지털사회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층, 성, 연령, 직업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명 : 인터넷 검색창에 보편적평생교육.net



Section

04

전남학숙

1.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2. 입사생 모집 및 선발
3. 인재 유치 및 학숙 홍보활동 강화
4. 면학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5. 마음 나눔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1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주요내용 : 노후화 된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재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02 추진 성과

- 전남학숙 건축·시설물 5개년 종합 관리 계획 수립('22년~'26년)
 - 개관 22년 경과로 노후화가 진행중인 건축·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종합 관리계획 수립('21. 7.)
⇒ '전남학숙 건축·시설물 종합 관리 계획'에 따라 석면철거('22년), 창호 교체('23년), 생활실 환경개선('24년, '25년), 공용 세탁실·휴게실 보수공사('26년) 추진
- 노후 시설물 개·보수
 - 라디에이터 환경개선으로 청사 내부 미관 개선('21. 3.)
 - 멀티미디어실 환경개선 공사로 재학생 편의 개선('21. 4.)
 - 생활실 침대(312개), 옷장(128개), 도배장판 교체 등('21. 8.)
 - 급수관(냉수) 세척 공사로 재학생 안전한 생활용수 제공('21. 8.)
 - 공용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21. 9.)
 - 지붕 환경개선으로 외부 누수 차단 및 미관 개선('21. 9.)
- 편의시설 확충
 - 면학시설 : 멀티미디어실 냉·난방기 설치('21. 4.)
 - 편의시설 : 체련단련실 운동기구 구입('21. 9.)



지붕 환경개선



멀티미디어실 환경개선



공용화장실 환경개선



생활실 침대, 옷장 교체



2 입사생 모집 및 선발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대상** : 광주 또는 인접 시·군 소재 정규 2년제 이상 대학(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전라남도인 자
- **주요내용** : 모집 희망자 접수 및 선발을 통한 입사생 충원

02 사업 내용

- **모집정원** : 312명(남 184, 여 128)
- **모집시기** : 매년 1회 정시모집(2월 중) 후 수시모집 전환
- **평가기준**
 - 신입생 : 생활정도(100점), 가점(5점)
 - 재학·졸업생 : 성적(30점) + 생활정도(70점), 가점(5점)

03 추진 성과

○ 2021년도 입사생 정시모집 결과

- **모집인원** : 117명(남 92, 여 25)
- **접수인원** : 168명(남 93, 여 75)

〈최근 3년간 입사경쟁률〉

2021			2020			2019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4:1	1.0:1	3.0:1	1.9:1	1.6:1	2.9:1	1.1:1	1.0:1	1.2:1

○ 2021년도 입사생 수시모집 결과

- **접수인원** : 66명(남 36, 여 30)

3 인재 유치 및 학숙 홍보활동 강화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전남학숙의 면학 및 장학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사업기간 : 2021. 1. ~ 12.
- 주요내용 : 대면·비대면 및 언론(방송사/신문사)매체를 통한 홍보 등

02 사업 내용

○ 세부 운영실적

- 대면 홍보 : 학교, 기관 등을 방문하여 입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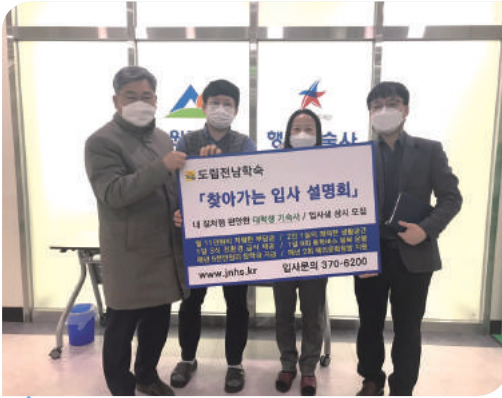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비고
대 학교	광주대학교 등 3개 학교	2021. 1.
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2021. 11.

- 비대면 홍보 : 대면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기관 등에 학숙 홍보물, 입사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협조 요청

구분	세부내용	비고
고등학교	순천, 여수, 광양, 목포 등 36개 학교	2021. 8.
	완도, 진도, 해남, 영암 등 44개 학교	2021. 11.
시/군기관	시·군청 누리집	2021. 2.
	22개 시·군 297개 읍면사무소	

- 기타 홍보 : 언론사 홍보 등

구분	세부내용	비고
TV광고	KBC, KBS2, 광주MBC 등 자막광고 187회	2021. 12.
책자광고	도의회 의정정보 지면 광고	2021. 2.
SNS홍보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 18세~60세, 전남 거주자	2021. 2.
	대학 또는 기숙사에 관심이 있는자 해당하는 인원	2021. 9.
현수막 게시	22개 시·군 주요거점지 입사안내 현수막 게시	2021. 2.



대면 홍보



비대면 홍보



SNS 홍보



4 면학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0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재학생들의 취업 및 적성 등을 함께 고민하여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 **사업기간** : 2021. 3. ~ 12.
- **주요내용** : 재학생 취업을 향상을 위해 전공별 세분화된 면학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02 추진 성과

-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 화순군 정신건강센터 : 마음건강 전문상담 및 초청특강 각 2회
 - 화순 영남 보건진료소 : 간호과 등 보건계열 학생 취업상담 6회
 - 보성군청 자치포럼 : 김창옥 교수 특별초청 강연 참석
- **온라인 강좌 지원 등 면학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온라인 동영상 강의료 및 자격(어학)취득 응시료 지원 / 년 2회(동영상 강의료 21명, 자격증(어학) 응시료 56명)
 - 이공계열 재학생 자격증 취득 등 취업대비 동아리 결성 및 지원
 - 성공적인 취업전략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대면특강 1회
(주최-기획재정부, 주관-목포대학교 전남지역경제교육센터)
- **면학지원 강화 방안 마련**
 - 공공기관 취업박람회, 대학교 세미나 참석 등 현장체험 강화
 - 지자체 및 진흥원 주관 프로그램, 취창업 특강 및 외부 행사 참여 확대
 - 대학 신입생의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개별 상담 지원 강화
 - 진로 상담 및 타 학속 면학 프로그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원 강화



○ 마음건강 전문상담



○ 취업상담



○ 보성군청 자치포럼 참석



○ 취업대비 동아리 결성



○ 마음건강 초청특강



○ 취업대비 초청특강

5 마음 나눔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0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재사생 사기진작
- **사업기간** : 2021. 3. ~ 12.
- **주요내용** : 단체헌혈, 광주/전남 자원봉사센터 활동 및 다양한 행사 추진

02 추진 성과

- **사랑나눔 단체 헌혈**
 - 일 시 : 2021. 6. 22. / 2021. 11. 2.
 - 장 소 : 전남학숙 현관 앞(광주전남 혈액원 헌혈버스 지원)
 - 참여결과 : 헌혈 36명(재사생 및 직원) 참여 및 헌혈증 100장 기증
- **헌혈유공 감사패 수상(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
 - 일 시 : 2021. 12. 27.
 - 장 소 : 전남학숙 관장실
-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교육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영상교육
-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 「빛고를 청년봉사단 18기」자원봉사(봉사활동 기획, 행사도우미 등)
- **우리지역 행사 견학**
 -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 **문화행사(사진전) 관람**
 - 김대중 아카브이전 관람(화순군) 및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사진전 개최
- **2021년 성년의 날 행사** : “2002년 말띠들아 스물스물 모여라~”
- **온라인 특강** : 인문학강의, 우리지역 역사 등 4회
- **장학생 추천**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광주은행 장학회, 화강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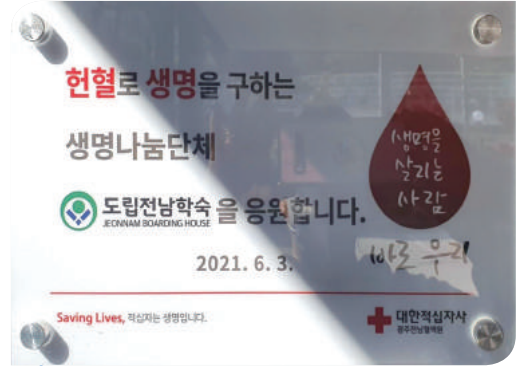
○ 사진전 관람



○ 성년의 날 행사



○ 단체헌혈



○ 헌혈유공 감사패 수상



○ 봉사활동



○ 우리지역 행사 견학

Section

05

언론보도 · 업무협약

1. 주요 언론보도
2. 업무협약(MOU) 체결
3. 2021년 후원해주신 분들

1 주요 언론보도

01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에 고석규 전 총장

(2021. 4. 26.)

전남 미래 인재 육성도민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기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이 고석규 전 목포대학교 총장을 초대 원장으로 임용했다.

고석규 초대 원장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23년간 목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썼다. 목포대학교 총장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전남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통합 출범,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이 진흥원장을 겸임하다 이날 초대 원장을 임용했다.

고석규 원장은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쳐 온 현장 전문가로서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전남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을 한 층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전남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과 함께 문해교육 등 도민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역 대학 졸업반 5천603명에게 개인당 60만원 지급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취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 졸업반 학생 중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 모두에게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고 15일 증서 수여식을 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최일 동신대 총장, 장학금 수혜 대학생을 대표한 학생 6명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전남도민과 대학생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이 장학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급한다.

장학금은 학생 1인당 60만 원씩이며 총 지급 규모는 34억 원으로, 21개 대학 5천603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중등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배준석 씨는 "취업 준비생에게 단비와도 같다"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부모님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공부에 집중하는데 부담이 됐는데 주어진 장학금으로 필요한 문제집을 구입하는 등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 입사가 꿈인 김현영 씨는 "외국어 능력을 높이도록 학원 수강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영록 이사장은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은 미래 전남의 인재로 성장하라는 200만 도민의 기대가 담긴 것으로, 취업 빙하기를 이겨내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3 전남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로 으뜸인재 비상

(2021. 9. 22.)

19년부터 4천655명 지원... 미국 MIT 박사과정, 서울대 합격 등 성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민선7기 브랜드 시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전남을 이끌 으뜸 인재 육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새싹인재, 핵심인재, 산업인재 등 3대 분야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천503명, 2020년 1천50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천655명의 인재를 지원했다.

꿈을 키우는 새싹인재 분야는 ▲어려운 가정의 예술 영재에게 전문교습을 지원하는 '예능영재 키움' ▲지역대학을 연계해 고교 과학동아리를 지원하는 '노벨캠프' ▲공공기관을 연계한 '진로체험' 등 6개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잠재력을 깨우는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분야는 ▲중고대학생 인재에게 300만~600만 원의 재능계발비를 지원하는 '새천년 으뜸인재' ▲해외 대학 석박사를 지원하는 '해외유학생'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지원한다.

지역혁신 리더인 산업인재 분야는 ▲도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도민행복대학' ▲청년의 사회공헌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무한도전 프로젝트' ▲경제인 네트워크 및 특강 '경제마당' 등 6개 사업으로 짜여 지역 리더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프로젝트는 전남의 우수 인재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도약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학부시절 국제학술지에 1저자로 게재될 정도로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교육봉사를 하던 마음 따뜻한 해외유학생 청년 A 씨는 미국 MIT 물리학 박사과정에 합격해 세계적 과학자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진도 국악고에선 5년 만에 으뜸인재 B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해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프로젝트가 백년대계로 자리 잡도록 전국 최초로 인재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실행기구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지난해 7월 출범시켜 사업 추진에 전력을 쏟고 있다. 지역공헌 활동을 활성화해 지역과 인재가 선순환하는 네트워크도 구축 중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시대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 대학생은 물론 일반 도민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면서 최근 장학금 기탁도 늘고 있다. 2019년 2억 8천여 만 원에 불과하던 기탁금이 2020년 40억 원,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26억 원에 육박하면서 전남도 인재육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남도, 5~8일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미래교육 새 비전 제시

전라남도는 5일부터 8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평생학습! 내 삶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순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주관한다. 당초 지난해 개최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순연 개최하게 됐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 동시 행사로 진행하는 등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351개의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국민이 함께하며,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



평생학습을 통해 내 삶의 미래 별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사의 컨셉을 구성했다. 개막행사, 전시마당, 주요행사, 체험행사, 특별행사, 외부박람회의 등 총 6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5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선 식전공연, 평생학습도시 공동선언,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신규 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식 및 재지정평가 우수평생학습도시 시상식이 진행된다.

전국 17개 시·도 통합관과 평생교육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는 홍보관에선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100세 시대 이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평생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문해·저학력 학습자 대상으로 일상생활능력을 제고하는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을, 고령화 사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장년 및 경력단절여성에게 자립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밀착기술교육 등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05 전남평생교육진흥원-남도학숙 인재육성 맞손

(2021. 11. 12.)

대학선배 멘토링 사업 성공적 운영 협력 업무협약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고석규)은 남도학숙(원장 정상용)과 전남 인재 육성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의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일환인 ‘대학선배 멘토링’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멘토 추천 등 인적자원 지원과 기타 각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학선배 멘토링’은 대학 입시, 직업 선택 등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 수집 접근 기회가 적은 청소년에게 남도학숙 재사생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1대1 맞춤형 멘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1월 개최 예정인 ‘대학선배 멘토링’에 참여할 멘토-멘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서울권 대학 견학과 미래설계·진로 선택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정상용 원장은 “전남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규 원장은 “남도학숙 재사생 중에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핵심인재로 육성하고 있는 ‘새천년 으뜸인재’를 포함해 훌륭한 학생이 많다”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추진, 3대 분야 16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1천503명, 2020년 1천50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천655명의 인재를 발굴해 육성했다.



07 전남학숙, 쿠바 한인 100년의 발자취 사진전

(2021. 4. 18.)

전남학숙, '쿠바 한인 100년 발자취 사진전' 성료 독립운동관련 사진 40여점 선배

도립 전남학숙은 최근 열린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사진전을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쿠바 한인 100년의 발자취'를 주제로 전남대학교 평화통일외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재기 교수가 지난 6년 동안 쿠바와 멕시코, 미국을 오가며 수집했던 사진과 기록물 가운데, 일제 강점기 쿠바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 관한 사진 40여점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쿠바 한인사회는 1905년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멕시코로 이주한 뒤 다시 1921년 쿠바로 재이주하면서 '대한민국민회'와 '대한여자애국단' 등을 구성하면서 본격 형성된 이후, 가족과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Diaspora·고국을 떠난 사람)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며,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김석원 관장은 "이번 전시회가 쿠바 이주 한인들의 애국심과 지구 반대편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삶의 애환을 우리 전남학숙 청년들이 함께 기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8 도립 전남학숙, 광주전남혈액원에 헌혈증 기부

(2021. 6. 23.)

도립 전남학숙(관장 김석원)은 22일 혈액증서 70여장을 광주 전남혈액원에 전달했다.

이날 혈액증서 전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석원 원장을 비롯해 전남학숙 대학생과 직원들은 “마음은 학숙으로, 손길은 이웃으로”라는 마음가짐으로 범국민적 헌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기증한 헌혈증서를 전달한 것.

김석원 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함께한 학생들과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헌혈 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립전남학숙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헌혈운동에 동참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09 전남학숙 구내식당,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2021. 9. 29.)

도립전남학숙이 최근 '국산김치 사용인증 자율표시제' 인증 기관으로 지정돼 현판식을 가졌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사)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의식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는 업소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도립전남학숙 구내식당은 전남도에서 생산·가공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은 물론 친환경먹거리 확대의 일환으로 국내산 우리콩으로 된장·간장을 담아 맛있고 정성 가득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김석원 관장은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으로 재사생의 먹거리 안전성 보장과 함께 향후 김장체험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업무협약(MOU) 체결

01 예능 영재 키움 사업 업무 협약

- 협약기간 : 2021. 3. ~ 2022. 2.
- 협약기관 : 전남예술고등학교,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진도국악고등학교
- 협약사항 : 예능 영재 키움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위탁 상호 협약

02 청소년 노벨캠프 거점교 업무 협약

- 협약기간 : 2021. 4. ~ 2024. 4.
- 협약기관 : 목포덕인고등학교,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광양고등학교
- 협약사항 : 고교학점제 연계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및 추진체계 구축

03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업무 협약

- 협약기간 : 2021. 7. ~
- 협약기관 : 전남지역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 협약사항 : 전남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협업 생태계 구축 등



출처 : 전남도청

04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 협약기간 : 2021. 7. ~
- 협약기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협약사항 : 지역 평생학습 진흥 및 전국민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등



05 전남인재육성 멘토링 사업 업무 협약

- 협약기간 : 2021. 11. ~
- 협약기관 : 남도학숙
- 협약사항 : 대학선배 멘토링 사업을 위한 인적자원(멘토) 연계 지원 및 상호 협력



06 전남학숙 재사생 정신건강관리 업무 협약

- 협약기간 : 2021. 4. ~
- 협약기관 :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협약사항 : 전남학숙 재사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및 특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07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업무 협약

- 협약기간 : 2021. 6. ~
- 협약기관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 협약사항 :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증서 기부문화 정착





2021년 후원해주신 분들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

개 인

강상구, 강성운, 강신희, 강지영, 강철수, 고동석, 고미경, 고석규, 공정희, 곽부영, 곽준열, 곽진희, 김갑득, 김경호, 김계홍, 김광남, 김 구, 김기평, 김다정, 김대석, 김미경, 김병중, 김보경, 김봉균, 김선호, 김성훈, 김세훈, 김승현, 김수연, 김승만, 김승채, 김승희, 김영록, 김영선, 김영찬, 김우람, 김재인, 김 정, 김종갑, 김종국, 김종기, 김종현, 김주현, 김지명, 김지호, 김차진, 김천재, 김현주, 김혜연, 김홍선, 김희필, 김효지, 나영수, 류인옥, 문정식, 문현식, 문효숙, 민일기, 박복희, 박서영, 박성열, 박승영, 박용학, 박정렬, 박진호, 박철원, 박현식, 박혜민, 박희경, 박희자, 방종진, 배용석, 배택휴, 백경애, 봉진문, 서은수, 서형빈, 선경일, 성연인, 손점식, 송상락, 신구원, 신동신, 신준수, 심영희, 심우정, 안선영, 인재석, 양창열, 위철민, 위훈량, 유덕규, 유영후, 윤재광, 윤화영, 이갑례, 이건창, 이귀동, 이금하, 이동미, 이동오, 이병용, 이병택, 이상용, 이상철, 이애란, 이영자, 이영태, 이원기, 이윤호, 이재경, 이정현, 이준교, 이형만, 임만규, 임선희, 임오중, 임은희, 임진출, 임채영, 임형근, 장광열, 장영일, 장영철, 장원영, 장정희, 전동호, 전광선, 정미라, 정수현, 정애숙, 정재훈, 정찬균, 조병섭, 조영진, 조재술, 지영배, 진양자, 최수영, 최은아, 최정규, 최종민, 최혜은, 한 열, 홍길순, 홍대승, 홍동균, 홍양현, 황의철, 황재필

기관·단체

(북)애중복지재단, (유)허니비, (주)광주은행, (주)동영골드프라자, (주)바이오에프디엔씨, (주)영진그린식품, (주)해양에너지, 강진군산림조합, 고흥군산림조합, 광양시산림조합, 구례군산림조합, 나주시노인요양원, 나주시산림조합, 담양군산림조합,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데스틴파워 주식회사,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드림노인복지센터, 무안군산림조합, 보성군산림조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순천시산림조합, 신안군산림조합, 여수시산림조합, 영광군산림조합, 영암군산림조합, 완도군산림조합, 의료법인 무등산의료재단 무등산생태요양병원, 이동호 선수 트레이닝센터, 장성군산림조합, 장흥군산림조합, 재단법인 남양장학재단,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개발공사, 전남생양농업협동조합, 좋은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월드코스텍, 주식회사 하나은행, 진도군산림조합, 케이티엔지 전남본부, 하이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맥테크산업(주), 함평군산림조합, 해남군산림조합, 해성재활사, 히즈언어치료

여러분의 기부가 전남 인재를 키우는 디딤돌이 됩니다.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기부금단체)입니다. 기탁하신 금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접수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기부안내는 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을 참고해주세요. -

2021.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성과집

발행일 | 2022. 3.

발행처 |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8층(전남전문건설회관)
Tel. 061)285-9464 Fax. 061)283-1007
www.jntle.kr